

완벽한 자율학습서

완자

자습서 정답친해

고등문학



1 문학의 본질

(1) 문학의 미적 기능

작품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10~11쪽

01 ⑤ 02 ③ 03 찬란한 슬픔의 봄 04 ④

01 이 시는 모란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소망과 슬픔을 노래한 순수 서정시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봄에 대한 기다림 → 봄의 상실 → 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해 소망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과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 시의 9행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③ 이 시에서는 모란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아름다운 시어와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④ 마지막 시행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도치법, 즉 일반적인 어순(목적어+서술어)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여 주제를 강조해 준다.

02 이 시는 '모란'과 '-르 테요'의 반복, 리듬감을 주는 올림소리, 시행 배열에 따른 호흡 조절, 수미 상관의 구조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되짚어보기 운율 형성 요소

-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게 하여 호흡의 속도를 조절함.
- 'ㄴ, ㄹ, ㅁ, ㅇ'의 올림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줌.
- '모란'과 '-르 테요'를 반복함.
- 처음 두 행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취함.

↓
문학의 미적 아름다움을 구현함.

03 이 시의 마지막 행의 시구 '찬란한 슬픔의 봄'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에서 '봄'은 화자의 소망인 '모란'이 피는 기쁜 계절이자,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픈 계절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모순된 감정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시구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되짚어보기 역설적 표현에 담긴 의미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은 화자의 소망이자 보람인 '모란'이 피어나는 기쁜 계절임.

↑ 모순된 감정

'봄'은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픈 계절임.

04 '모란'은 화자에게 삶의 전부이자 소망으로, '모란'이 피고 짐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달라지고 있으나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모란'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대상이자,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다.

③ '모란'이 피는 시기는 봄이므로, '모란'이 상정하는 시기는 봄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지식+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나타난 유미주의

이 시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다가 모란이 피는 잠깐의 기쁨을 누린 후, 모란이 지고 나면 슬픔과 상실감에 빠진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에도 화자는 또다시 봄을 기다린다. 다시 돌아오는 봄도 참나인 것을 잘 알지만, 모란이 그에게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보람이기에 감내한다. 이는 슬픔과 비애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김영랑 초기 시의 유미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 준다.

(2) 문학의 인식적·윤리적 기능

작품1 수오재기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0~23쪽

01 ③ 02 ② 03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내[몸]만은 지켜야 한다. 04 ② 05 ⑤ 06 ② 07 몸을 지키는 것 08 ①

01 작가는 성현의 경전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며 성현의 경전이 쉽게 없어지지 않음을 예로 들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에서 작가는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며,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나)와 (다)에서 작가는 '천하 만물'과 '나[품]'의 특성을 대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에서 작가는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02 (다)에서 작가는 '나[품]'의 특성을, 잘 알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고 깨닫고 있다. 처음에 작가는 '나[품]'가 작가 자신과 굳게 맺어져 있어 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수오재'라는 당호에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장기로 귀양을 간 뒤에 '나'의 특성을 새롭게 깨닫고, '나'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담긴 작가의 깨달음

작가가 깨달은 '나[품]'의 특성

- 잘 알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음.
-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음.
- 세상의 이익, 위험, 재앙, 유혹 등에 쉽게 흔들림.
-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음.



오직 '나[품]'만은 지켜야 함.

- 03 '수오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지니고 있었던 '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오직 '나[품]'임을 깨닫는다.

- 04 (다)는 '나'라는 것의 특징과 '나'가 알아나는 예 등을 언급하며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힌 문단이다.

오답풀이 ①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에서는 '나'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천하 만물'의 특성은 (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④ (다)에서는 세속적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본성을 언급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작가는 '나'와 달리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5 (라)~(마)의 내용으로 보아, 작가는 결국 '나[품]'를 붙잡아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을 모르는 '나'를 붙잡아 남해의 귀양지에서 함께 머문다.

되짚어보기

'나'를 잃었던 과거에 대한 작가의 반성

조정에 나아감.

- 과거가 좋게 보여 벼슬길에 나아감.
-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니며 '나'를 잃고 살아감.



귀양지로 유배됨.

- 비로소 '나'와 서로 마주함.
- '나'를 다시 붙잡아서 간직한 후에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음.

- 06 이 글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당호를 소재로 하여 작가가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기록한 한문 수필로,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는 있으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

③, ⑤ 이 글은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다루고 있을 뿐, '수오재'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거나 큰형님의 '수오(守吾)'를 널리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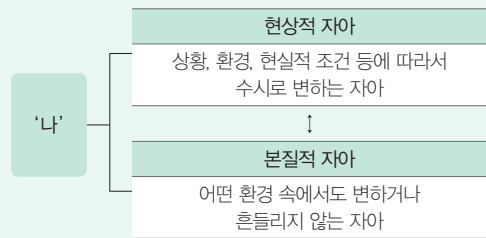
④ 벼슬살이를 하면서 '나'를 잃어버렸던 작가의 경험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나를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벼슬살이 자체에 대한 헛된 욕망을 경계하고 반성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 07 (마)에서 인용한 맹자의 말 중,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수오(守吾)'에 해당한다.

- 08 ㉠의 '나'는 '나'의 두 가지 의미 중, '현상적 자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본질적 자아'이다.

되짚어보기

작품 속 '나'의 두 가지 의미



작품 2 산속에서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8~29쪽

01 ⑤ 02 ② 03 ⑤ 04 ㉠, ㉢, ㉤ / ㉡, ㉣

- 01 이 시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고백적인 어조로 표현한 작품으로, 대화의 상대(청자)가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 시의 1연과 3연에는 도치법이 쓰이고 있다.

②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따뜻함과 외로움 등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③ ‘~은 모르리라’, ‘~은 알리라’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이 시는 ‘불빛’으로 대변되는 긍정적 시어와 ‘어둠’, ‘밤’으로 대변되는 부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2 이 시가 삶에 대한 성찰을 노래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에서 ‘길’은 인생길, 삶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 전체 맥락상 ‘길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고비를 맞아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나 고난, 삶의 고비를 겪지 않은 사람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시련과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03 ㉠의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의 의미는 ‘나그네’가 힘겨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는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화자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성찰하고 있다.

③ 화자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으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④ 화자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보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되짚어보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삶의 자세

삶의 길에서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함.

04 이 시에서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고, ‘어둠’, ‘밤’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은 ‘불빛’으로 대변되며,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힘을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의미한다. 이와 대비를 이루는 ‘어둠’, ‘밤’은 시련이나 고난, 절망과 슬픔 등을 의미한다.

되짚어보기

대조적 의미의 시어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어둠’, ‘밤’
희망, 위안, 위로 등	고난, 슬픔, 시련 등

단원 평가 문제

본문 37~39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② **07** 지킬 필요가 없다 **08** ③ **09** ⑤ **10** ① **11**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 /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 **12** ② **13**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14** ②

01 이 시는 봄이라는 계절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섬세한 어조와 부드러운 어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는 색채가 느껴지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선명한 색채 대비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02 ‘뚝뚝’은 모란이 무너지듯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시어로, 화자의 절망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모양’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모란’은 봄의 상징이자, 화자의 소망이다.

② ‘봄’은 모란이 피는 계절로, 화자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기이다.

④ ‘보람’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이자, 모란으로 형상화된 화자의 소망을 의미한다.

⑤ ‘삼백예순 날’은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고 느끼는 화자의 깊은 슬픔이 담긴 표현이다.

03 ㉠은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된 감정을 역설법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일부분으로, 길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하는 표현법인 반어법이 쓰였다.

오답 풀이 ① 유치환의 ‘깃발’의 일부분으로, 바람에 휘날리며 울부짖는 듯한 깃발의 모습을 역설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리 없는’과 ‘아우성’의 의미가 서로 모순된다.

② 이육사의 ‘절정’의 일부분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의 초극 의지를 역설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철’은 차가움과 절망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반면에 ‘무지개’는 따뜻함과 희망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서로 모순된다.

③ 조지훈의 ‘승무’의 일부분으로, 승무를 추기 전 여승의 고우면서 한스러운 모습을 역설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곱다’와 ‘서럽다’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④ 한용운의 ‘논개’의 일부분으로, 논개에 대한 예찬과 실천적 삶에 대한 의지를 역설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천추에 죽지 않는’과 ‘하루도 살 수 없는’은 서로 모순된다.

04 이 글은 오랜 노력 끝에 은전 한 닢을 얻고 기뻐하는 거지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집착, 성취의 기쁨 등에 대해 담담하고 간결한 문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긴밀한 줄거리를 갖추고 있는 콩트 형태의 글로, 작가의 소감 없이 거지의 말로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피천득, 「은전 한 뼚」

이 작품은 오랜 노력 끝에 은전 한 뼚을 얻고 기뻐하는 ‘거지’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집착, 성취의 기쁨 등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갈래	경수필, 서사적 수필
성격	서사적, 회상적, 체험적, 극적
제재	은전 한 뼚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 •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함. •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한 편의 콩트처럼 긴밀하게 구성됨. • 끝부분에서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05 이 글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오재(守吾齋)’라는 당호를 소재로 하여, 작가가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기록한 한문 수필이다. 그러므로 ‘수오재’라는 당호를 갖게 된 내력을 밝히는 글은 아니다.

06 (나)에서 작가는 천하 만물과 달리 ‘나[吾]’는 잃어버리기는 쉬우나 돌이키기는 어렵고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수양하여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07 (가)에서 작가는 자문자답을 통해,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08 ㉠의 첫 번째 ‘나’는 현상적 자아를 가리키고, 두 번째 ‘나’는 본질적 자아를 가리킨다. 작가는 과거 공부와 관직 등의 세속적 현실을 쫓다가 귀양을 와서야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09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문학의 기능을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불빛’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우리 역시 실의에 빠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삶의 자세를 고민해 보는 ⑤의 내용이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가장 관련 있다.

|오답풀이| ③ 이 시에서 ‘거대한 산줄기’는 역사적 흐름과 관련이 없다.

④ 이 시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10 이 시에서 화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복잡한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②, ③ 이 시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하고 있을 뿐, 자연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모습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을 읊조리고 있을 뿐,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는 삶의 실상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으나, 삶에 대한 달관이나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11 1연의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시련이나 절망, 외로움 등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 3연의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반대로 삶의 시련을 겪어 본 사람을 뜻한다.

12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도치법이 쓰이고 있다.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바꾸어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는 수사법을 가리킨다.

|오답풀이| ① 영탄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직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열거법에 대한 설명이다.

13 이 시에서 ‘어둠’은 시련과 고난, 슬픔 등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시어이다. 이와 대조되는 긍정적인 시어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로 희망, 따뜻함, 위로 등을 의미한다.

14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안도감 등을 의미한다. 또한 4연의 내용으로 보아, ㉠은 ‘나그네’를 잠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이 시에서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은 맥락상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는 집들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먼 곳의 불빛은 3연에 제시된 ‘거대한 산줄기보다도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갈래 이론 확인 문제

본문 46~55쪽

- 01 ⑤ 02 윤율 03 ⑤ 04 심상 05 ① 06 외형률
07 ⑤ 08 ⑤ 09 공감각적 10 ② 11 ③ 12 상징
13 ⑤ 14 ② 15 상상력 16 ④ 17 ① 18 인물, 사
건, 배경 19 ④ 20 ② 21 개성적 인물 22 ③ 23 ②
24 전지적 작가 시점 25 연극 26 ③ 27 ② 28 ⑤
29 대본 30 ⑤ 31 ② 32 ② 33 경수필 34 ①

작품1 가는 길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56~57쪽

- 01 ⑤ 02 ③ 03 까마귀, 강물 04 ⑤

- 01 이 시는 선정 후경(先情後景)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시의 1~2연에서는 화자의 그리움과 망설임이라는 내면 심리(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3~4연에서는 화자에게 떠날 것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경치)을 드러내고 있다.

되짚어보기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처지와 정서

1~2연	선정(先情)	이별의 내면적 상황
3~4연	후경(後景)	이별의 외면적 상황

↓
임과 이별하고 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 02 이 시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임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임을 두고 떠나는 상황에 대한 망설임,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의 여러 정서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두려움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03 이 시의 3연의 '까마귀'와 4연의 '강물'은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되짚어보기

중심 소재의 역할: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자의 이별을 재촉함.
'강물'	이별의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화자의 이별을 재촉함.

- 04 이 시의 1연은 한 행이 1음보를 이루도록 시행을 배열함으로써, 시 낭독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떠나기를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㉔에는 호흡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되짚어보기

시행 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

1~2연	한 행을 1음보로 구성하여 느리게 읽게 됨. →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모습과 느린 호흡이 대응함.
3~4연	일부 행을 3음보로 구성하여 빠른 호흡으로 읽게 됨. → 화자의 조급한 마음과 빠른 호흡이 대응함.

↓
화자의 정서와 시의 호흡이 대응하여,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

작품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64~77쪽

- 01 ④ 02 ④ 03 황만근이 없어졌다. 04 ③ 05 ①
06 ⑤ 07 고장 난 경운기 08 ① 09 민 씨 10 ②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④ 16 희한할세, 바보가.
17 ⑤ 18 ④ 19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20 ② 21 ③
22 황 선생 23 ② 24 ③ 25 ③ 26 ④ 27 ⑤ 28 하
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

- 01 이 글은 전체적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성격이나 가치관,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가)~(나)에서 시점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02 (나)에서 '황재석'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황만근'이 한 번도 외박한 적이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 03 이 글은 '황만근이 없어졌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즉 주인공인 '황만근'의 실종으로 글을 도입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 부분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효과

'황만근이 없어졌다.'

-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
-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함.

- 04 ㉠은 '만근'이란 이름을 활용한 언어유희적인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쓰인 것은 ㉢이다.

|오답풀이 ①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나타난다.

- ②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④, ⑤ 역설적 표현이 나타난다.

- 05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민 씨'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투리의 사용은 작품에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② (다)에서는 인물의 독백이 나타나지 않으며,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민 씨'와 '이장'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6 이 글에서 '황만근'을 걱정하고 있는 '민 씨'는 '황만근'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이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장'을 추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 씨'와 '이장'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이지,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되짚어보기 '민 씨'의 특징과 역할 ①

- | | |
|-----------|---|
| '민 씨'의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외지인임. • 마을 사람들과 달리, 사투리를 쓰지 않음. |
|-----------|---|

↓

외지인인 '민 씨'를 통해 '황만근'이라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등장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

- 07 이 글에서 '민 씨'가 언급한 '고장 난 경운기'는 '황만근'이 쫓겨 대회에 혼자 타고 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운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서 '황만근'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

- 08 ㉠은 언어유희를 통해 '이장'이 '황만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황만근'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풍자하는 내용이 아니다.

- 09 '민 씨'는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장'에게 논리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이장'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황만근'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되짚어보기 '민 씨'의 특징과 역할 ②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장'에게 논리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음.

-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이장'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함.
-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만근'의 면모를 드러냄.

- 10 마을 회관 옆 자신의 밭에서 채소를 심어 먹는 사람은 '이장'이 아닌 '여씨 노인'이다. 또한, '이장'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11 (마)로 보아, '황만근'은 이익을 추구하는 판단력은 없지만, 세상 이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바르고 공평하게 잘 판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되짚어보기 '황만근'의 성격

-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함.
- 마을 공동의 분노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줌.
- 공평무사한 것이 평생의 처사임.

↓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정신이 강하고 매사에 공정하고 바름.

- 12 ㉠의 뒷부분에 제시되는 문장인 “만그이도 알 까다.”는 글의 맥락상, 누구라도 명백하게 (그 일에 대해) 알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의 뜻을 지닌 ‘명약관화(明若觀火)’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감개무량(感慨無量)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애이불비(哀而不悲)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주도면밀(周到綿密)은 ‘주의가 두루 미쳐 자세하고 빈틈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 13 (사)로 보아, 신대 1리에는 2년 전에 귀농한 '민 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온 '노 씨'를 포함하여 전체에서 두 가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 씨' 네가 유일하다고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되짚어보기 '황만근'이라는 이름의 의미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음.

'만근산'은 신대 1리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 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함. → 즉, '만근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근원임.

'황만근'이라는 이름은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곧 '황만근'이 '만근산'과 같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함.

14 (바)의 마지막 문장에서, '황만근가'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담겨 있고,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5 (바)의 “백 분[번], 째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는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흉내 낸 노래인 '황만근가'를 부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고전 문학적 요소인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되짚어보기 (바)에 나타난 고전 문학적 요소

해학적, 풍자적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 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황만근'과 달리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풍자함.

16 (아)의 “희한할새, 바보가.”라는 말은 '황만근'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감탄하며 하는 말로,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담긴 말이다.

17 (자)로 보아, '황만근'은 '황재석'의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병글거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황재석'의 말을 긍정적인 태도로 듣고 있는 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8 (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황만근'이 한 일은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옷을 입히는 희귀하고 힘든 일이지, 용왕제를 지내는 일 자체는 아니다.

되짚어보기 '황만근'이 한, 마을 일

- 염습과 산역
-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때때옷을 입히는 일

남들이 꺼리는 일,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함.

19 (자)에서는 '황만근'이 하는 일에 제값이 쳐질 때는 경운기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황만근'이 대부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황만근'이 한 일의 대가

동네일인 경우	대가 없음.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반값임.
경운기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	제값임.

20 이 글에서 '황만근'은 남이 꺼리는 일에 앞장서며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이타적인 인물로, 이와 대조되는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되짚어보기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

'황만근'	마을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들이 꺼리는 일에 앞장섬. • 매일 연장을 돌보고, 정리를 해 둠. •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만근'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주지 않거나, 반값만 주거나, 주면서도 공치사를 함. • '황만근'을 무시하며 '반근이'라고 부름.
↔ 대비	
↓	↓
이타적 인물, 전통 사회의 인물 유형	이기적 인물, 자본주의 사회의 인물 유형

21 (타)로 보아, ③에 해당하는 내용은 농가의 어려운 사정과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이 한 말이다. 반면 '황만근'은 이에 개의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2 (타)는 이 글의 결말 부분으로, '민 씨'의 입을 빌어 '황만근'의 죽음과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묘비명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에서는 '황만근'을 '황 선생'이라고 높여 부르며, 그의 이타적이고 우직한 삶을 예찬하고 있다. 즉 '황 선생'이란 호칭은 '황만근'에 대한 서술 태도가 바뀌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23 ②의 '공연히'는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라는 뜻이다. (타)의 해당 문장은, '사람들은 빗만 남는 농사에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해 봐야 실속이 없이 자기 뼈만 상한다고 하였으나 황만근은 개의치 아니하였다.'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24 (파)로 볼 때, '황만근'에게 있어서 '술(막걸리)'은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이며,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또한 그의 삶이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③은 '황만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낮추어 보는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일 뿐이다.

- 25 (하)~(너)는 ‘민 씨’가 쓴 묘비명으로, 제시된 부분에는 ‘황만근’의 죽음, ‘황만근’에 대한 평가, 묘비명을 쓴 구체적인 날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황만근’ 인생의 일대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민 씨’는 ‘황만근’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고,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며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②, ④ 농민 총결기 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가기로 했지만 ‘황만근’ 외에는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황만근’의 우직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⑤ (너)에서 ‘민 씨’가 ‘단기 사천삼백삼십 년 오월 스무날(1997년 5월 20일)’에 글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6 이 글에서는 묘비명 형식을 통해 ‘황만근’의 죽음을 기리고, 본문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심리 묘사는 제시되지 않았다.

되짚어보기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의 효과

'묘비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 씨’가 서술한 것으로, ‘황만근’의 실종과 죽음의 과정이 담겨 있음. •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함.
'묘비명' 형식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가 있음. •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황만근’의 실종 및 죽음에 이른 과정 등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줌.

- 27 (하)를 통해 ‘황만근’이 경운기와 함께 길옆의 논으로 떨어져 그 옆에서 경운기를 지키다가, 추위와 졸음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황만근’이 술이 취해 경운기를 몰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황만근’은 경운기를 끌고 먼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 길을 달려 군청으로 갔다. 도중에 비가 내려 추위에 떨며 군청에 도착했을 때에는 끝기 대회가 끝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③ ‘황만근’은 어머니를 위해 생선을 사고, 비 때문에 연 몸을 녹였다. 그리고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④ 경운기에는 빨리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황만근’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되짚어보기 '경운기'의 역할

- 사건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등장인물 간의 대화의 소재가 됨.
- ‘황만근’의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
- ‘황만근’의 죽음과 직결되는 소재임.

- 28 (거)의 마지막 문장에는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긍정적인 평가가 집약되어 있다.

단원 평가 문제

본문 84~86쪽

01 ③ 02 까마귀, 강물 03 ⑤ 04 ③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묘비명 10 ② 11 ⑤

- 01 ③은 도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이 시는 민요조의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1~2연에서는 한 행이 1음보를 이루도록 시행을 나눔으로써 낭독의 속도를 늦춰 이별하는 순간의 그리움과 망설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3연의 1행과 4연의 3, 4행은 한 행이 3음보를 이루도록 시행을 배열하여 낭독에 속도감을 주고, 빨리 떠나야 하는 현실적 상황과 결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이 시의 4연에서는 유음, 비음의 울림소리를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02 <보기>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의 시어로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강물’ 또한 객관적 상관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한다.

- 03 ⑥은 화자에게 떠나야 함을 재촉하는 말로, 이별의 아픔을 심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떠나는 화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이 시는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통해,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슬픔’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에서 언급한 ‘함박눈’은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 시에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는 ‘기다림’이다.

되짚어보기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이 작품은 ‘슬픔’을 화자로 하여 현대인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비판적, 의지적, 박애적
제재	슬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촉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함. •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슬픔’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함.

- 05 이 글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려 낸 소설이다. 이를 통해 선량하며 이타적인 ‘황만근’의 삶과 이기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삶을 대비하여, 이기적인 삶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인정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06 (가)에서 '황만근'이 평생 단 하루만 외박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술을 마시고 종종 외박을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에서 '황만근'을 제외한 '이장' 및 다른 사람들은 쫓겨 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장'만 투쟁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고장 난 경운기'는 '황만근'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이 글에서 '황만근'은 자신만이 작동시킬 수 있고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경운기를 타고, 쫓겨 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09 제시된 부분은 '민 씨'가 묘비명이라는 형식을 빌려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황만근'의 죽음을 기리고,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황만근'의 실종 및 죽음에 대한 과정 등을 서술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10 ㉠은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평가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11 <보기>는 '임춘'의 「공방전」으로,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서사 갈래인 '전(傳)'에 해당한다. '돈(엽전)'을 의인화한 인물을 통해, 풍자적이고 우의적으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하고, 당대의 경세(經世)를 비판하고 있다. '황만근'이란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글과 달리, <보기>는 사물인 '돈'을 의인화하여 내세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 역시 <보기>와 마찬가지로 '황만근'의 생애를 '전(傳)'의 형식과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③,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작중 인물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으며, 세상과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❷ 읽어보기 임춘, 「공방전」

이 작품은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문인인 임춘이 지은 것으로, '돈(엽전)'을 의인화하여 돈의 폐해를 비판한 가전이다.

갈래	가전(假傳)
성격	우의적, 풍자적, 교훈적, 전기적
제재	돈(엽전)
주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 경계, 경세(經世)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 전기(傳記)적 구성을 사용하여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서술함.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

작품 1 눈물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88~89쪽

01 ③ 02 웃음 03 ⑤ 04 ②

01 이 시에서는 슬픔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드러날 뿐, 상반된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눈물'을 '작은 생명'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꽃'과 '열매', '웃음'과 '눈물'처럼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슬픔의 종교적 승화와 순결한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작은 생명이고저……'에서 기원적 어조가 나타나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에서 경어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작품 전반에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⑤ 화자는 자식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과 상실의 아픔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신이 지어 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02 '열매'는 나무의 결실이자 삶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젠가 시들과 마는 '꽃'과는 달리,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5연의 '웃음'은 4연의 '꽃'과 같이 일시적인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매'와 대비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❷ 읽어보기 시어의 상징적 의미

'꽃', '웃음'	'열매', '눈물'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외면적 가치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내면적 가치

03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은 모두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영원한 것이며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반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은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외면적 가치를 의미한다.

04 이 시의 '당신'은 절대자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는 등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존재이다. 화자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주어 '눈물'을 짓게 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화자가 믿고 의지하며 '눈물'을 바칠 존재이다. 화자가 사랑하는 존재이면서, 지금은 화자의 곁을 떠난 대상은 화자의 아들이다.

작품 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96~109쪽

- 01 ⑤ 02 철거 계고장 03 ④ 04 ③ 05 ③ 06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07 ③ 08 ② 09 ③ 10 알루미늄 표찰 11 ② 12 ⑤ 13 고기 굽는 냄새 14 ⑤ 15 ② 16 ④ 17 ⑤ 18 주머니 19 ③ 20 ③ 21 ② 22 비(婢), 노(奴) 23 ② 24 ④ 25 ① 26 ④ 27 ⑤

- 01 (가)에서 ‘나’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 이외의 것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나’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

‘지옥’, ‘전쟁’	‘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 난쟁이 가족의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 난쟁이 가족의 꿈

- 02 ‘철거 계고장’은 건물을 없애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나’의 가족이 이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또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라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03 ‘보리밥’,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 ‘줄인 감자’뿐인 어머니의 밥상은 매우 불품없고 초라하다. 이를 통해 ‘나’의 가족이 매우 빈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는 소재

‘철거 계고장’,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줄인 감자’
↓
자진 철거를 명령하는 ‘철거 계고장’과 어머니의 초라한 밥상은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드러냄.

- 04 ㉓는 ‘나’의 가족이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현실에서 끊임없이 좌절하며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05 (다)의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를 통해 철거 비용을 낙원구청이 아닌, ‘나’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라)에서 어머니는 집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손으로 부엌 바닥과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는 절망감과 답답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되짚어보기 ‘철거 계고장’을 받은 어머니의 심리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함.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집을 허물게 된 상황에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낌.

- 07 ‘낙원’은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을 뜻하고, ‘행복’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 즉 ‘낙원구 행복동’이란 지명은 ‘나’의 가족의 비참한 현실과는 대조되며,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가족이 꿈꾸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되짚어보기 ‘낙원구 행복동’의 의미

‘낙원구 행복동’에 살고 있는 난쟁이 가족은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음.	
↓	
반어적 표현의 효과	동네의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통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강조함.

- 08 철거 계고장을 받은 ‘나’는 동사무소로 향한다. ‘나’는 동사무소 앞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9 (사)에서 ‘나’는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머니를 도와 알루미늄 표찰을 떼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바)에서 아버지는 책을 읽기만 하고 집 철거나 입주권 매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버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체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사)에서 어머니는 철거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표찰을 떼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사)에서 ‘영호’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니와 ‘나’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집을 떠날 수 없다며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바)에서 ‘영희’의 상기된 얼굴을 통해 ‘영희’의 다급하고 당황한 심리를 알 수 있다. 또한 (사)에서 ‘영희’는 어머니와 ‘영호’에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묻고 있다.

되짚어보기 철거에 대한 어머니와 ‘영호’의 태도

어머니	‘영호’
철거에 순응함. (현실 순응적)	철거를 거부함. (현실 저항적)

- 10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은 무허가 건물임을 표시하는 물건이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의 가족의 모습을 드러낸다.

되짚어보기

‘알루미늄 표찰’의 의미

‘알루미늄 표찰’

-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표찰로, 무허가 건물임을 표시함.
- 표찰이 없을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음.



난쟁이 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임을 드러냄.

- 11 ‘나’의 가족들은 철거 예고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도 내팽개치고 동사무소 앞에 모였다. ‘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12 ‘난쟁이’는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이 글에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한다. 하지만 ‘난쟁이’라는 말을 통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시대적 배경까지 짐작하기는 어렵다.

되짚어보기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

난쟁이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
-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함.



작가는 ‘나’의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함.

- 13 이 글에서 ‘고기 굽는 냄새’는 개천 건너 주택가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 냄새’와 대비되어 소외된 빈민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 14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나’에게 고기를 사 줄 수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냄새냐는 ‘나’의 질문을 ㉠과 같이 회피하고 있다. 이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빨리 빠져나와 고기에 대한 화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머니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 15 (아)에서 ‘영호’는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라고 말하며, 아파트는 철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아버지는 ‘영호’가 지금 집에서 그냥 살 거라는 말을 듣고,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놓았으니 애긴 그걸로 끝난 것이라며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④ ‘영희’는 아파트에 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돈을 모아서 가자는 입장은 아니다. 또한 현재 집에 정이 들어서 이사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 떠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⑤ ‘나’는 집을 헐러 오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영호’의 말에 그만두라며, 그들 옆엔 법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 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철거에 대해 순응하는 입장으로, 아파트 입주와 입주권을 파는 것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6 그들 옆에 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의 가족이 아무리 저항을 한다고 해도 ‘그들’, 즉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 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곧, 법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강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7 (차)에서는 ‘나’와 어머니의 대화를 중심으로, 어렸을 적 ‘나’가 가난한 삶에 대해 원망을 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 18 ‘주머니’는 돈이나 먹을 것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주머니’는 경제적 풍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소재의 대비

‘주머니 없는 옷’

소외되고 가난한 삶

‘주머니가 달린 옷’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재들을 통해 소외된 빈민들의 절망적인 삶을 부각하고 있음.

- 19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라는 문장을 통해 ‘나’가 고자질을 한 ‘영희’를 때렸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어머니가 옷에 주머니를 다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어머니가 옷에 주머니를 달아 주지 않은 이유는 가난한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영희’는 어머니에게 ‘나’가 고기 냄새를 몰래 맡으러 갔으며, 자신은 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 ④ ‘나’가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나’, ‘영호’, ‘영희’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가 ‘영희’를 흘려본 이유는 ‘영희’의 고자질 때문이다.
- ⑤ 어머니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나’에게 매를 맞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때로 때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20 ‘나’는 고기를 먹게 해 주지도 못하고,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게 해 주지도 못하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를 원망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21 노비제가 사라진 것은 ‘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 즉 ‘나’의 증조부 대였다.

▶오답풀이 ①, ③, ⑤ ‘나’의 조상들은 친가와 외가 모두 노비로 살아왔고, 재산으로 취급받으며 상속·매매·기증·공출되기도 했다. ④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나’의 할아버지는 증조부와는 달리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2 [A]에서 ‘비(婢)’와 ‘노(奴)’는 각각 여자 종과 남자 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문서가 노비 매매 문서임을 짐작하게 한다.

23 ‘나’는 아버지가 고생하며 열심히 살아왔음을 알고 있다. 또한 현재의 가난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며, 아버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

24 ‘나’의 할아버지는 교육과 경험 부족으로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었고, 결국 이를 잃고 말았다. 이는 무지함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5 ‘영희’네도 아파트로 못 가지 않느냐는 ‘명희’ 어머니의 질문에, 어머니는 “무슨 돈이 있대구!”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어서 입주권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아파트’는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것인데도 정작 철거민은 돈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파는 입주권을 구입하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뿐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27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동화적인 제목과 달리 ‘나’의 가족의 삶은 가난하고 비참하다. 이는 당대 부정적인 현실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제목의 ‘난쟁이’는 사회적 약자를, ‘작은 공’은 난쟁이 가족의 꿈과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쏘아 올린’ 것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들의 꿈과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작품의 제목에 담긴 의미

‘난쟁이’	신체적 장애, 사회적 약자, 가난한 계층
‘쏘아 올린’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절망, 좌절
‘작은 공’	난쟁이의 꿈과 소망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의 제목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절망적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과 대비되어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부각함.
-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한 난쟁이의 좌절을 암시함.

작품 3 참새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116~121쪽

01 ④ 02 ③ 03 ⑤ 04 참새 소리 05 ② 06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07 ① 08 ② 09 ④ 10 악취미, 살풍경 11 ⑤ 12 ③

01 (다)에서 작가는 진달래꽃이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피어 봄소식을 전해 주며, 우리의 생활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참꽃이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다. 즉, ‘참꽃’은 작가가 직접 붙여 준 이름이 아니다.

02 참새는 조그만 몸매가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이 검소하면서도 조출하고,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대고, 쫓으면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오고,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는 새이다. 따라서 참새가 쫓으면 날아가서 자취를 감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라)에서 작가는 우리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참새가 앞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04 (가)에서 작가는 꿈속에서 들은 참새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참새와 관련된 상념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참새 소리’는 작가가 상념에 잠기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05 우리 민족은 벼 이삭이나 복데기까리, 겨 속의 낱알, 수채의 밥풀 정도는 참새에게 내어 주었다. 논이 허수아비는 새가 이삭이 아닌, 나락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되짚어보기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

-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음.
- 이삭이나 복데기까리나 겨 속의 낱알,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식하지는 않음.
- 참새를 얘기같이 귀엽게 여겨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부드러운 말씨로 말함.
-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옴.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한집안 식구같이 살아옴.

06 (바)에서 참새가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 이로온 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07 (마)에서 작가는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 않다며,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친숙하게 여긴 새와 그렇지 않은 새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은 ‘새’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이며 남다른 취향을 밝힌 것이라기보다, ‘새’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일반적인 인식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8 (사)를 통해 ‘목단’이 누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는데도, 작가는 그녀를 누나라고 불러 주지 않고 ‘목단’이라고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자)에서 작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마리의 참새나마 아쉽고 그립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작가는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무한한 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참새가 사라져 가는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자)에서 작가는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것은 악취미이고 살풍경이라고 말하며 자연을 소유하려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11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은 석장 짙은 노승의 부름을 계기로 참된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화봉으로 돌아가게 된다. 작가는 이처럼 「구운몽」의 결말 부분을 제시하며, 우리도 ‘성진’처럼 되찾아야 할 삶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 ㉠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킨다. 이는 꽃과 돌을 방에 옮겨 놓거나, 새를 잡아 가두어 놓는 것처럼 인간이 소유하고 가둔 자연의 모습과 상반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단원 평가 문제

본문 129~132쪽

01 ⑤ 02 ③ 03 5면 04 ② 05 ④ 06 ③ 07 ②
08 난쟁이 09 ③ 10 ⑤ 11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12 ④ 13 ① 14 ③ 15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16 ⑤

01 ‘눈물’은 순결한 존재,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내면적 가치 등을 의미한다. 삶의 기쁨과 같은 현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웃음’이다.

02 ‘작은 생명’의 원관념은 ‘눈물’로서,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이자, 가장 값진 삶의 결실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④ ‘작은 생명’은 곧 ‘눈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눈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작은 생명’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⑤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서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03 이 시의 4연에서는 ‘꽃’이 시들과 ‘열매’를 맺게 한 존재를 ‘당신’이라는 절대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는 ‘당신’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신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화자의 ‘눈물(슬픔, 고통)’이 곧 절대자의 섭리에 따른 삶의 결실이라는 깨달음에 따른 것이다.

04 ㉠의 ‘이’는 ‘눈물’을 가리킨다. ‘나무의 꽃’은 이와 대비되는 시어로, 삶의 기쁨과 같은 일시적이며 현상적·외면적 가치를 의미한다.

05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계기로 창작되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슬픔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고 있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집어보기 정지용, 「유리창 1」

이 작품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구사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과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제재	유리창	주제	자식을 잃은 슬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여 치분한 어조로 표현함. •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위법이 나타나며, 역설적 표현이 사용됨. 		

06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철거민들의 차후 주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이 글에서도 재개발 때문에 난쟁이 가족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07 (가)에서 ‘나’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옮겨 보았다고 말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나’의 가족은 지옥에서 살아가듯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또한 ‘보리밭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뿐인 초라한 밥상을 통해 ‘나’의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이며 궁핍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철거 계고장을 받은 어머니는 “기어코 왔구내!”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나’는 가족들이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으며, 하루하루의 생활이 전쟁과 같았다고 하였다.

08 이 글에서는 ‘나’의 아버지를 신체적 장애를 지닌 ‘난쟁이’로 설정함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상징함과 동시에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을 강조하고 있다.

09 ㉔은 철거 계고장이 발급된 일시를 나타낸다. 집을 자진 철거해야 하는 기일은 '197×. 9. 30'이다.

10 이 글은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고 있으나, 공간적 배경인 '낙원구 행복동'은 실재가 아닌 가상의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서는 현재의 장면이 제시되다가, (다)와 (라)에서는 과거의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11 (가)에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좁은 마당'을 덮고 있다. 이는 '나'의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한다.

12 알루미늄 표찰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 아파트 입주 대신 매매가 가능하다. 어머니가 이 알루미늄 표찰을 떼는 이유는 수입이 없는 빈곤한 현실에 대한 대비로 입주권을 팔기 위해서이다.

13 '주머니'는 음식이나 돈 등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글에서 '주머니'와 '주머니가 달린 옷'은 곧 경제적 풍요를 의미한다. 이는 빈곤한 '나'의 가족의 처지와 대비된다.

14 (다)에 나열된 행위는 모두 자연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의 소유욕을 '악취미', '살풍경'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15 (라)에서 작가는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참새들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6 이 글에서 '참새'는 우리 민족과 항상 함께하던 친근하고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보기>에서 '참새'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나 지배층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이와 같이 '참새'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지닌 두 사람의 대화라고 상상할 때, ㉔와 같은 판단은 이 글의 작가가 오늘날 참새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맥락과 거리가 있다. 또한 '참새'가 사라진 것이 농민들의 탓도 아니다.

되짚어보기 이제현, 「사리화」

이 작품은 고려 말기 학자인 이제현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관(官)의 수탈 때문에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데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갈래	정형시, 한시, 7언 절구
성격	풍자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제재	참새
주제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한 삶
특징	• 권력자들의 수탈과 횡포를 비유적으로 고발함. • 당시 민족적 현실을 풍자하여 나타냄.

(3)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작품1 가 꽃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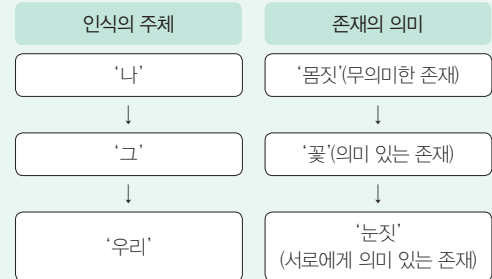
본문 134~135쪽

01 ㉔ 02 우리 03 ㉔ 04 ㉔

01 이 시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와 '꽃이 되었다.',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등과 같은 시구의 반복과 변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과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며,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2 이 시의 4연에서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서로의 본질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되짚어보기 인식의 주체와 존재의 의미 확대



03 이 시는 명명(命名) 행위, 즉 '이름 부르기'를 통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에 가 닿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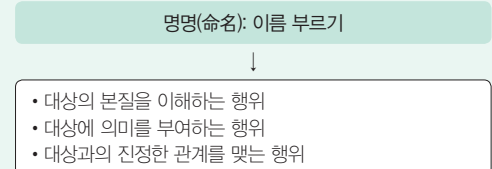
|오답풀이| ① ㉔과 ㉔의 '나'는 모두 인식의 주체이다.

② ㉔의 '그'는 화자가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의 의미 없는 존재인 반면, ㉔의 '그'는 화자가 이름을 불러 준 후의 의미 있는 존재이다.

③ ㉔과 ㉔에서 존재의 의미는 '무의미한 존재'에서 '의미를 부여 받은 존재'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경쟁자'에서 '동반자'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㉔과 ㉔에서 명명 행위에 의한 대상의 의미 변화는 나타나지만,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되짚어보기 명명(命名) 행위의 의미



- 04 ‘몸짓(㉠)’은 화자가 ‘그’를 인식하기 전의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한다. 나머지는 모두 화자의 명명 행위를 통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대상이다.

작품1 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136~137쪽

- 01 ② 02 단추를(버튼을) 눌러 준다. 03 ② 04 ③

- 01 이 시는 ‘라디오’라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의 경박한 사랑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02 김춘수의 「꽃」에서는 대상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존재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 시에서는 단추, 즉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되짚어보기 ‘단추(버튼) 누르기’ 행위의 의미

단추(버튼) 누르기

- 타자와 소통을 추구하는 행위
-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 서로에게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위

- 03 김춘수의 「꽃」은 하나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인식 전에 ‘하나의 몸짓’이었던 시적 대상이 인식 후에 ‘꽃’, ‘무엇’, ‘눈짓’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한편 이 시에서는 인식 전의 ‘하나의 라디오’가 ‘단추’를 누름으로써 ‘전파’가 된다. 여기에서 ‘전파’는 인식 후의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되짚어보기 시상의 전개와 그에 담긴 의미

‘하나의 라디오’	인식 이전의 의미 없는 존재
↓	
‘전파’	의미 있는 존재(사랑하는 존재)
↓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

- 04 ㉠은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라디오처럼 만남과 헤어짐 역시 가볍고 편리하게 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사랑을 표현한 시구이다. 이는 시상을 의도적으로 뒤튼 것으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경박한 사랑을 풍자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다.

작품2 파수꾼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144~153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⑤ 05 ② 06 망루, 양철 북
07 ④ 08 ④ 09 ④ 10 ② 11 ④ 12 ① 13 ⑤
14 ⑤ 15 ① 16 ① 17 ④ 18 ③ 19 ② 20 파수꾼 ‘다’는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 0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며 극 중 시간이 과거로 바뀌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해설자가 ‘춘장’이 되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 배우가 ‘해설자’, ‘춘장’, ‘운반인’을 연기한다.
② 이 글은 희곡으로, 특정한 서술자 없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③ ‘춘장’이 파수꾼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중심 공간은 황야에 세워진 망루로 볼 수 있다.
④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가 이리 떼의 정체가 거짓임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

- 02 이리가 치어 있다는 ‘춘장’의 말에 파수꾼 ‘나’는 드디어 이리를 붙잡는다며 좋아한다. 이로 보아 파수꾼 ‘나’는 이리의 존재를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파수꾼 ‘다’가 ‘춘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실, 즉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편지를 받고 ‘춘장’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것이 둘 사이에서 갈등의 계기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편지’의 내용과 역할

내용	이리 떼의 정체는 흰 구름이었음.
역할	‘춘장’이 직접 파수꾼 ‘다’를 찾아오게 만든 계기로, 두 인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발단이 됨.

- 04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춘장’의 방문 목적이 파수꾼 ‘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춘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리의 핑계를 대며 파수꾼 ‘나’를 그쪽으로 가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은 파수꾼 ‘나’를 내보내고 파수꾼 ‘다’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춘장’의 의도가 담긴 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파수꾼 ‘다’와 ‘춘장’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이 ‘이리 떼’의 거짓 존재를 밝히는 것과 관련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의 존재를 밝히려 하고, ‘춘장’은 밝히지 않아야 된다고 갈등하고 있다.

- 06 이 글에서 ‘망루’는 파수꾼들이 이리 떼를 감시하는 공간이며, ‘양철 북’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의 습격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두 소재는 모두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되짚어보기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리 떼’	가공의 존재, 거짓, 지배 이념, 공포 정치의 수단
‘흰 구름’	‘이리 떼’의 실체, 진실
‘망루’, ‘양철 북’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
‘딸기’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급하는 회유책,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정한 대가, 독재 권력이 누리는 실리
‘팻말’	거짓 명분, 명분 뒤의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

- 07 ‘촌장’은 실상이 알려질 경우 혼란이 찾아오고, 파수꾼들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된다면 파수꾼 ‘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08 ㉔은 ‘촌장’이 ‘이리 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말일 뿐, 상대방의 두려움을 달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촌장’이 망루에 온 이유는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권력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즉 ‘망루를 찾아오는 일’은 ‘촌장’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므로, “고맙다.”라는 말은 ‘촌장’의 불쾌한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② ‘수다쟁이’, ‘떠벌리고’ 등의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낱말을 통해 ‘촌장’이 ‘운반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팻말’은 명분 뒤의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들, ‘딸기’는 부정한 이득을 상징한다. 즉 ㉔은 팻말에 적힌 문구처럼 진실을 은폐하면, 딸기와 같은 부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⑤ ‘촌장’은 ‘이리 떼’의 존재가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질서를 이끌 어 냈다고 본다.

- 09 모든 사람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이다. 이는 자신의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道理(道理)를 행함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일벌백계(一罰百戒)는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

람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③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공(愚公)이라는 노인이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하여 이에 감동한 하느님이 산을 옮겨 주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 10 ‘촌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려는 파수꾼 ‘다’에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침착하게 반응한다. 또한 파수꾼 ‘다’의 말에 수긍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교활한 계략으로 파수꾼 ‘다’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촌장’의 모습은 간사하고 꾀가 많으며 위선적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촌장’은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③ 상대의 말에 반성하는 척하다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등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④ 겉으로 드러난 말로 보았을 때 개인주의적이거나 타인에게 매정한 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⑤ ‘촌장’은 용의주도한 인물이므로 총동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촌장’은 무모한 일에 끼여들지도 않았다.

되짚어보기 ‘촌장’의 특징 및 상징적 의미

특징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거짓말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함.
상징적 의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

- 11 ㉔은 ‘촌장’이 끔찍한 결과를 가정하여 파수꾼 ‘다’를 질책하자, 파수꾼 ‘다’가 화들짝 놀라며 한 말이다.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는 ‘촌장’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거나 크고 뚜렷하게 대사를 해야 한다. 반면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거나 우물거리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설득되기 전으로, 아직까지는 진실에 대한 확신과 이를 밝힐 용기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㉔은 확신에 찬 의지적인 어조와 어울린다.

②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촌장’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촌장’이 자신과 함께 진실을 외쳐 준다고 하자 이제 됐다며 안심하는 부분이다. ㉔에는 해결책(합의점)을 찾아냈다는 안도와 기쁨의 감정이 들어 있다.

③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 자신의 말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떠보려는 의중이 담겨 있는 말이다. 따라서 ㉔은 상대방의 반응을 결눈질하는 듯한 표정이 적절하다.

⑤ ‘촌장’이 파수꾼 ‘다’를 꺼안는 것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선적인 성격을 관객이 눈치챌 수 있도록 관객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보일 수 있다.

12 ‘촌장’이 말하는 ‘거짓 놀이’란 울타리 건너편에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무서움에 떨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온 것을 의미한다.

13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은 생각 뿐이었는데, ‘촌장’은 이것을 두고 파수꾼 ‘다’가 자신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4 파수꾼 ‘나’는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아픈 사람 취급한다. 따라서 파수꾼 ‘다’가 의도적으로 아픈 척을 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촌장’은 이리를 헛치었다고 실망하는 파수꾼 ‘나’에게 다음에는 꼭 잡힐 거라며 헛된 희망을 주고 있다.

② 마을 사람들은 편지 내용, 즉 이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망루에 찾아온다.

③, ④ 파수꾼 ‘나’는 편지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되짚어보기 파수꾼 ‘나’, ‘마을 사람들’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

파수꾼 ‘나’	특징	‘양철 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알리는 일을 함.
	상징적 의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으며,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
마을 사람들	특징	‘이리 떼’의 존재를 믿으며, ‘촌장’에게 속은 채로 살아감.
	상징적 의미	진실을 모른 채 위선적인 독재 권력에 속고 살아온 민중들

15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어 대규모의 군중 장면을 그대로 보여 주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관객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극 중에 끌어들이므로써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16 파수꾼 ‘다’는 진실을 당장 밝힐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으로 인해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17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촌장’과 약속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의 내적 갈등은 인물의 ‘긴 침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운반인’은 진실을 전파한 사람으로, 진실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거짓으로 마을의 평화를 했다고 파악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촌장’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후, 파수꾼 ‘다’에게 마을엔 오지 말라며 권력자의 냉정한 태도와 단호하고 고압적인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

②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촌장’과 그의 하수인들로 인해 ‘이리 떼’의 실상을 알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파수꾼 ‘다’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악점 때문에 ‘촌장’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게 되었다.

⑤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의 암담함과 파수꾼 ‘다’의 절망감을 거친 바람 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19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을 놀리려고, 즉 재미를 위해 거짓말을 주도한다. 한편 「파수꾼」의 ‘촌장’은 대중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주도한다.

되짚어보기 「양치기 소년과 늑대」와 「파수꾼」의 비교

	「양치기 소년과 늑대」	「파수꾼」
거짓말의 주체	‘양치기 소년’	‘촌장’
거짓말의 내용	‘늑대’의 공격	‘이리 떼’의 공격
거짓말의 이유	재미	권력 유지, 대중 통제
거짓말의 피해자	‘양치기 소년’, 마을 사람들	파수꾼 ‘다’, 마을 사람들

20 마지막 장면에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모두 알면서도 양철 북을 두드리며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1~164쪽

01 ② **02** (가)에서는 ‘이름 불러 주기’로, (나)에서는 ‘단추(버튼) 눌러 주기’로 표현하였다.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④ **09** ① **10** ② **11** ② **12** ② **13**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경우, 파수꾼은 늑대처럼 헛북이나 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14** ① **15** ⑤

01 (가)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와 ‘꽃이 되었다.’,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등과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타난다. (나)는 (가)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나)의 형식적 특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02 (가)에서 대상의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이와 같은 행위는 (나)에서 단추(버튼)를 누르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03 (가)의 시상은 무의미한 존재인 ‘몸짓’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 ‘꽃’으로, 더 나아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 ‘눈짓’으로 확대되고 있다.

04 (가)의 화자는 존재의 참된 모습과 가치를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맺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5 ㉠은 이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06 (나)는 라디오를 쉽게 켜고 끄는 행위처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을 풍자한 작품이다. 여기에는 쉽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풍조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는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늘날의 황금만능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서술어로 시상을 마무리한 반면, <보기>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독자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② (나)에는 화자의 자조적인 한탄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물질적 가치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미친’ 일이라는 자조적 한탄이 나타난다.

③ (나)는 라디오를, <보기>는 메뉴판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나)는 김춘수의 ‘꽃’을, <보기>는 상품명과 가격표가 적혀 있는 메뉴판의 형식을 차용하여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이 작품은 세계적인 작가와 인문학자의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메뉴판의 형식을 빌려 나열한 시이다.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늘날의 황금만능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어적, 풍자적, 냉소적
제재	메뉴판
주제	물질 만능의 사회 풍조에 대한 풍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판 형식을 차용하여 정신적 가치의 상품화를 표현함. 자조적인 어조와 반어적 표현을 통해 물질 만능의 현실을 비판함.

07 이 글은 진실이 은폐되고, 이를 밝히려는 시도조차 저지되는 사회를 비판하는 희곡으로, 우화적 기법과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촌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를, 파수꾼 ‘다’는 독재 권력에 저항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결국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마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08 (가)에서 ‘촌장’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파수꾼 ‘다’의 물음에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라고 대답한다. 이로 보아 ‘촌장’은 ‘이리 떼’를 무서워하지 않는 척 하며 위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는 존재라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촌장’이 “이것, 네가 보낸 거냐?”라며 파수꾼 ‘다’에게 편지에 대해 묻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촌장’이 편지 때문에 파수꾼 ‘다’를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촌장’의 말인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잃어 본 모양이더라. ~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던 다.”를 통해 ‘운반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알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마)에서 파수꾼 ‘나’의 말인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를 통해 파수꾼 ‘다’가 평소 ‘이리 떼’를 무서워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파수꾼 ‘나’의 말인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를 통해 파수꾼 ‘나’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파수꾼 ‘가’와 ‘나’는 망루에서 경계를 서다가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양철 북’을 두드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촌장’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하수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중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의 정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촌장’은 마을의 질서를 위해 ‘이리 떼’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좋으며 반대한다.

③ ‘촌장’은 오늘 일을 자신에게 맡긴다면 내일은 파수꾼 ‘다’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것이라며 파수꾼 ‘다’에게 조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④ ‘촌장’의 계략에 넘어간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약속을 받아낸 후,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로써 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

⑤ 파수꾼 ‘다’는 자신이 진실을 밝힐 경우 ‘촌장’이 입게 될 피해, 즉 마을 사람들의 보복으로 ‘촌장’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촌장’의 설득에 회유된다.

10 ‘망루’는 민중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발견하긴 했으나, 결국 ‘망루’ 위에서 다시 거짓을 외친다는 점에서 거짓이 폭로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

11 '운반인'은 '이리 떼'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편지 내용, 즉 진실을 마을 사람에게 알린 사람이다. 하지만 진실이 은폐되면서 희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12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촌장'은 위선적이며 교활한 인물이다. 하지만 ㉠에 나타난 '촌장'의 모습은 이러한 성격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는 뜻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오답 풀이 ①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대동소이(大同小異)는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각주구검(刻舟求劍)은 '유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13 (나)에 제시된 '촌장'의 말을 통해 '촌장'이 마을의 질서와 충직한 파수꾼들의 고귀한 희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의 뒤에 이어지는 대사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자신만의 논리로 궁지에 몰아 회유하기 위해 한 말이므로, 여기에는 '은밀한 목소리로'가 가장 적절하다.

15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 망루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촌장'의 거짓말대로 계속 '이리 떼'를 무서워하면서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작품1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166~167쪽

01 ㉠ 02 ㉡ 03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습니까? 04 ㉢

01 이 시의 '바라본다', '물어본다'에서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시적 상황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현장감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

02 시인은 입체적인 세상을 납작하게 눌러 표현하는 박수근의 화법에 주목한다. 그것에서 세파에 시달리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박한 서민들의 현실을 읽어내고,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오답 풀이 ① 2연의 '표정도 없이'라는 시구를 통해, 인물의 표정을 강조하지 않는 박수근의 화법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⑤ 색채와 질감과 관련한 화법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③ 1연의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여편네와 아이들도 / 한 며칠 놀렀다가'라는 시구를 통해 짓눌려 있는 듯한 대상의 상태에 초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박수근 화법의 시적 형상화

1연	납작하게 눌림.
2연	발바닥, 입술, 표정,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름.



각박한 서민들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형상화함.

03 1연의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습니까?'와 2연의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는 설의적 표현이다. 이는 절대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04 ㉠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슬픔을 표현할 겨를도 없이 힘들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상에 짓눌린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다.

되짚어보기 표현상의 특징

설의적 표현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려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항변함.
의태어	'납작납작', '드문드문', '서성서성', '떨렁' → 작품 속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생동감을 부여함.
현재형 어미	'바라본다', '물어본다' →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함.
유사한 구절 반복	'한 며칠 놀렀다가', '~도 없이' →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174~183쪽

- 01 ② 02 ③ 03 ③ 04 허 생원은 객줏집에서 어린 장돌림 동이가 충주댁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 혼을 낸다. 05 ①
06 달 밝은 밤 07 ⑤ 08 ⑤ 09 ② 10 ② 11 ②
12 ③ 13 ⑤ 14 허 생원, 동이의 등이 편하다. 15 ②
16 ④ 17 ③ 18 나귀 19 ⑤ 20 ④

01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에서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소도구가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놀란다.’, ‘놀란 목소리로’, ‘탄식하며’ 등과 같이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표현되고 있다. ③ ‘허 생원’의 말을 통해 객줏집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이 전달되고 있다.

④ ‘메밀밭 길’과 ‘밤’이라는 배경을 통해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⑤ 이 글은 시나리오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조 선달’, ‘허 생원’ 등의 대사를 통해 서사가 진행된다.

02 ‘S# 42’에서 ‘동이’는 메밀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할 정도로 서두르는 ‘동이’의 발걸음 소리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아침 일찍 출발해도 대화 장에 시간 맞추어 갈 수 있을 만큼 ‘동이’가 걸음이 빠르고 힘이 세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맥락상 ㉠은 ‘길을 나서다’를 뜻한다.

04 ‘앞부분 줄거리’에서, ‘허 생원’이 객줏집에서 어린 장돌림 ‘동이’가 ‘충주댁’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 따귀를 때리며 혼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일로 인해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멀리서 따라오는 ‘동이’가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걱정한다.

되짚어보기 ‘허 생원’ 일행과 ‘동이’의 관계

‘허 생원’이 객줏집에서 ‘충주댁’에게 농탕을 치던 ‘동이’를 혼낸다.

‘허 생원’ 일행은 ‘동이’가 자기들에게 보복하려고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둔다.

‘허 생원’ 일행이 ‘동이’를 경계하며 ‘동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에 긴장감을 더하여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과 집중을 유도한다.

05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뒤따라오던 ‘동이’가 허리를 숙이자 돌멩이 같은 것을 집어서 자신들에게 던질까 봐 긴장

하지만,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하여 머쓱한 표정을 짓는다.

06 대화 장으로 향하는 길에 ‘조 선달’은 ‘허 생원’에게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하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말하고,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함께했던 달밤의 일을 떠올린다. 이처럼 달밤은 ‘허 생원’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또한 달밤은 작품의 분위기를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연출해 준다.

되짚어보기 시간적 배경의 의미 및 역할

달 밝은 밤

- ‘허 생원’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배경임.
- 작품의 분위기를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연출함.

07 ㉠은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은 이야기로, ‘허 생원’이 봉평의 어느 물레방앗간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의 인연을 맺고 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허 생원’은 달 밝은 밤이면 이 이야기를 ‘조 선달’에게 들려주는데, 이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잊지 못하는 ‘허 생원’의 순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 ‘조 선달’은 이전에 여러 차례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동이’는 모르는 이야기이다.

㉢. ‘허 생원’이 봉평 장에서 ‘성 서방’네의 현 옷감을 손해 보고 사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도 장돌림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08 ㉣은 현재의 ‘달 밝은 밤’에서 과거의 ‘피약별이 비추는 낮’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삽입된 것으로, 장면을 현재에서 과거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준다.

되짚어보기 영상 매체의 특성에 따른 구현 방식

내레이션

현재 장면(달 밝은 밤)에서 과거 장면(피약별이 비추는 낮)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줌.

09 (바)는 ‘허 생원’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끝나고,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조 선달’과 대화를 이어 나가는 장면이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허 생원’과 ‘조 선달’의 서로 다른 회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허 생원’은 이십 년 동안 ‘성 서방네 처녀’를 찾아다녔다. 따라서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 할 수 있다.

㉢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동이’보다 앞서 걸으며 ‘허 생원’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동이’ 어머니는 ‘동이’를 낳고 친정에서 쫓겨났고, ‘동이’는 친부의 얼굴도 모른 채 계부 밑에서 자랐다. 이러한 ‘동이’의 이야기에서 ‘동이’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동이’의 출생 내력을 들으며, ‘동이’에 대해 점점 알아 가고 있다.

- 10 (사)에서 ‘동이’는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로 보아 ‘동이’가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동이’의 출생 내력

- ‘동이’의 출생 내력
- 제천에서 태어남.
 -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며, 계부 밑에서 자람.
 - 어머니는 달도 차지 않은 자신을 낳고 친정에서 쫓겨남.

↓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순박하고 꾸밈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음.

- 11 ㉠이 ‘허 생원’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 선달’이 ‘허 생원’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성 서방네 처녀’를 찾아 헤매던 ‘허 생원’에게는 ‘성 서방네 처녀’를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 12 ㉢는 ‘허 생원’에게 자식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 ‘허 생원’이 ‘동이’를 돌아보는 장면과 연결된다. 이는 대단원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허 생원’이 ‘동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되짚어보기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조 선달’의 대사

배불렀다는 딸이 ‘성서방네 처녀’였다면 ‘허 생원’의 아이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이는 ‘동이’와 비슷한 나이임.

- 13 (아)에서 ‘허 생원’은 개울을 바라보며 지난 장마 통에 떠 내려간 널다리 이야기를 꺼낸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개울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4 ‘허 생원’은 ‘동이’와의 대화에서 ‘동이’ 어머니가 자신이 찾던 ‘성 서방네 처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이’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다. ‘허 생원’이 어색한 사이였던 ‘동이’를 편하게 느끼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 15 ‘허 생원’은 봉평의 메밀밭 길을 걸으며 ‘동이’와 그의 모친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동이’의 이야기를 통해 ‘허 생원’은 ‘동이’ 모친의 고향이 자기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은 곳인 봉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봉평은 ‘동이’ 모친의 삶의 내력과 관련이 있는 공간(ㄱ)이자,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공간(ㄷ)이다.

【오답 풀이】 ㄴ. ‘허 생원’에게 그리운 추억이 있는 장소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근원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도피의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ㄷ. ‘동이’는 현재 제천에 있는 어머니를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봉평은 ‘동이’에게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봉평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가 만난 곳이자 ‘동이’ 모친의 고향임.

- 16 ‘허 생원’은 ‘동이’ 생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푸라기로 무언가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에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는다.

- 17 ‘조 선달’은 개울에서 나눈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동이’의 모친에 대한 사연을 모른다. 따라서 ‘조 선달’이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되짚어보기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원손잡이

‘허 생원’과 ‘동이’가 모두 원손잡이이고, ‘동이’의 생부 역시 ‘원손잡이’임.

- 18 이 글에서 나귀 ‘백근이’는 ‘허 생원’과 동일한 존재로 등장한다. 나귀의 내력이나 외모, 행동 양상이 ‘허 생원’과 비슷한데, 이를 통해 ‘허 생원’의 삶의 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허 생원’과 나귀 ‘백근이’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허 생원’과 나귀 ‘백근이’의 관계

‘허 생원’	‘백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대 사내 • ‘충주댁’과 농tang친 ‘동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 • ‘성 서방네 처녀’에게서 얻은 ‘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늙은 나귀 • 암탕나귀를 보고 발광하는 모습 • 강릉집의 암말에게 얻은 새끼

↓

‘허 생원’과 ‘백근이’를 동일시하고, 둘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표현함.

- 19 ㉠은 가족을 만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떠돌이 삶을 접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돌려 표현하였다.

- 20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울리면서 세 사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빛 속을 걸어가는 모습에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된다. 또한 ‘허 생원’의 들뜨고 설레는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 01 ③ 02 ② 03 펄링 (펄링) 04 ② 05 ④ 06 ①
07 ‘땅’은 정착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허 생원’은 가족을 만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8 ① 09 ⑤

01 (가)는 화가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청자로 등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의 ‘예덕선생’은 끝없는 예찬하는 대상일 뿐, 청자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달픈 서민들의 삶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엄 행수’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미덕을 예찬함으로써 이와 대비되는 양반들의 허욕과 위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④, ⑤ (가)와 (나)는 모두 소외되기 쉬운 서민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가 서민의 고달프고 애처로운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반면에 (나)는 서민(‘엄 행수’)의 성실하고 근면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박지원, 「예덕선생전」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 동을 저서 나르는 일을 하는 ‘엄 행수’라는 인물을 ‘예덕선생’이라 높이 칭하며, 무위도식하면서 허욕에 찬 양반들의 생활을 비판하였다.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교훈적
배경	조선 후기, 한양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천민 계층의 ‘엄 행수’
주제	바람직한 교우의 도(道)와 ‘엄 행수’의 무실역행하는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함.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등사상이 담겨 있음.

02 ‘납작하게 뻗어 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라는 시구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를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 속 인물들에게서 고단함을 느끼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라는 표현처럼 <보기>에는 인물들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아낙네’, ‘여편네와 아이들’이 나타나는데, <보기>에는 아이들 없이 아낙네(여편네)들만 등장한다.

④ (가)에서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과 관련한 장면이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 ‘하나님’이란 시어가 쓰이지만, 이는 부당한 현실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설정한 대상이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에도 기독교적 세계관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가)에 쓰인 ‘펄링 펄링’은 대상을 납작하게 표현하는 박수근 화법이 반영된 표현으로, 힘없이 세파에 흔들리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04 ‘동이’는 아버지 성씨를 묻는 ‘허 생원’의 물음에, 성씨는 모르나 지푸라기로 무엇을 만드는 솜씨가 좋다고 하여 ‘초 서방’이라고 불렀다고 대답한다. 이로 보아 ‘초 서방’의 ‘초(草)’는 아버지 성씨가 아닌 그 특징을 따서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허 생원’은 이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성 서방네 처녀’를 찾아다녔다.

③ ‘허 생원’은 ‘동이’의 등에 업혀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는 ‘허 생원’이 ‘동이’에게서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허 생원’과 ‘동이’는 모두 왼손잡이며, ‘동이’의 생부 역시 ‘허 생원’처럼 왼손잡이다. 이는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 관계임을 암시한다.

⑤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자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성 서방네 처녀’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제천에 갈 생각을 한다.

05 ‘허 생원’과 ‘백근이’는 볼품없는 외양이나 내력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허 생원’은 ‘백근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백근이’의 새끼에 대한 ‘허 생원’의 애정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ㄷ).

오답풀이 ㄱ. ‘백근이’와 정서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은 ‘동이’가 아닌, ‘허 생원’이다.

ㄴ. ‘백근이’는 ‘허 생원’과 동반자적인 관계로, ‘허 생원’에게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허 생원’이 장가를 못 갈 정도로 집착하는 대상은 아니다.

06 ‘동이’는 ‘허 생원’과 ‘조 선달’의 대화를 듣지 못해 자신의 어머니가 ‘성 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반면 독자는 ‘허 생원’과 ‘조 선달’의 대화를 모두 알고 있어, 뒤에 이어질 ‘동이’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게 된다.

07 ‘허 생원’은 그동안 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장돌림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땅’은 정착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을 만나 정착하고 싶은 ‘허 생원’의 심리를 대변해 준다.

08 ㉔에서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말을 더듬고 있으므로, ㉔에는 ‘당황하며’가 적절하다. 또한, ㉔는 ‘허 생원’과 마찬가지로 ‘동이’가 왼손잡이임이 드러나고, ‘동이’가 그의 아버지도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조 선달’의 반응이므로, ‘놀란 표정으로’가 적절하다.

09 (나)는 원작 소설을 시나리오로, <보기>는 만화로 각색한 것이다. 시나리오에는 촬영 및 편집을 거쳐 영상 매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방법과 편집 기술이 활용되고 이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가 사용된다.

3 한국 문학의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작품 정음사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00~201쪽

01 ① 02 ④ 03 저재 04 ④

- 01** 이 시가는 ‘어귀와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와 같은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오답 풀이 ② 5행에서 의문형 문장이 사용되었지만,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돌’은 소망과 기원의 대상일 뿐, 감정 이입의 소재로 볼 수 없다.
 ④ 이 시가의 화자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적 어조가 아닌, 염려와 기원의 어조를 사용한다.
 ⑤ 이 시가에서 색채 이미지는 강조되지 않았으며,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02** 화자는 현재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으므로, 남편에 대해 체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남편을 기다리며, ‘돌’에게 남편의 안녕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② 음악의 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③ ‘존 디를 드디올세라’는 진 곳(위험)을 디덜까 두렵다는 의미로,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⑤ ‘점그를세라’는 ‘저물까 두려워라’로 풀이된다. 즉,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어둡거나 위험할까 염려가 된다는 의미이다.
- 03** ‘저재’는 ‘저자에, 시장에’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화자가 남편에게 저자에 가 있냐고 묻는 것을 보아, 화자의 남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이 시가에서 ‘돌’은 광명이자 천지신명(기원의 대상), 안녕의 수호자를 의미한다. ④는 ‘내’를 ‘나’로 해석하는 경우, 시구 ‘내 가는 디’가 의미하는 바에 해당한다. 따라서 ‘돌’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배경지식+ ‘내 가는 디’의 다양한 해석

‘내’를 ‘임’으로 해석하는 경우	남편의 행상길을 의미함.
‘내’를 ‘나’로 해석하는 경우	남편을 마중 나가는 아내의 길, 혹은 아내가 살아갈 인생길을 의미함.
‘내’를 ‘임과 나’로 해석하는 경우	부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을 의미함.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작품 봉산 탈춤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10~219쪽

01 ③ 02 ① 03 쉬이 04 ② 05 ① 06 ④ 07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08 ①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④ 14 ① 15 ③ 16 ② 17 ⑤ 18 ⑤ 19 ②

- 01** ‘말뚝이’는 양반에 대해 도전적이며, 서민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ㄷ). 또한 언어유희로 극에 생동감을 더하는, 활달하고 재치가 넘치는 인물이기도 하다(ㄴ).
- 02** ①은 ‘샌님’과 ‘서방님’의 의복을 제시한 부분이다. 이러한 의복을 통해 ‘샌님’과 ‘서방님’의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샌님’과 ‘서방’, ‘도령’의 생김새와 행동을 희화화함으로써 그들이 풍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드러낸다.
- 03** 춤이 끝나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할 때, ‘말뚝이’가 가운데에 나와 “쉬이”라고 하면 음악과 춤이 멈추고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되짚어보기 ‘쉬이’와 ‘춤’의 기능

‘쉬이’(재담의 시작)	춤(재담의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를 환기함.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림. 음악과 춤을 멈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담을 구분함.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함.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함.

- 04** ①은 ‘양반’을 ‘개잘량’과 ‘개다리소반’으로 풀이함으로써 해학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양반을 비하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05** ‘양반춤’ 과장에서 각 재담의 내용은 다르지만, ‘말뚝이’와 ‘양반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다. 곧 “양반들”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들’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들’의 안심의 구조이다.
- 06** ‘춤’은 재담의 끝을 알리는 것으로, 인물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며,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쉬이’이다.
- 07** ‘말뚝이’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라고 말함으로써 관객들을 극 중에 개입시키고 있다. 이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 악공이나 관객이 자유롭게 극에 참여할 수 있는 민속극의 특징을 보여 준다.

- 08 ㉠은 ‘놈’과 ‘없습디다’를 사용해 격식을 차리지 않음으로써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추측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

되짚어보기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태도

“샌님 비뚤한 놈도 없습디다.”

- 격식을 갖추지 않은 표현(‘놈’, ‘없습디다’)을 사용함.
-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 09 민속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공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민속극과 현재의 연극 비교

	민속극	현재의 연극
진행 방식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짐.	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무대 장치	무대 장치를 배치하지 않고, 공연하는 곳이 무대가 됨.	공연을 위해 무대 장치를 사전에 제작하여 배치함.
관객의 역할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음.	대체로 관객은 극에 개입하지 않음.
무대와 객석의 구분	명확하지 않음.	명확함.
전체 구성	대체로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옴니버스 형식의 구성임.	대체로 한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을 이루는 구성임.

- 10 ‘말뚝이’가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를 묘사한 것은 양반의 부도덕함을 폭로하려고 한 것이지, 체면을 세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 (바)에서 ‘말뚝이’는 ‘양반들’이 머물 새처를 마구간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양반들’을 가축으로 비하하고 있다.

㉡ 문방제구가 놀이 자리에 화려한 가구를 둬으로써 ‘양반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말뚝이’는 ‘양반들’을 가축으로 비하한 뒤 ‘양반들’의 호통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다가, 칼 담배를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놓았다며 다시 조롱함으로써 ‘양반들’이 여전히 풍자의 대상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 양반의 담배를 삼털 같은 칼 담배라고 하고 이를 돼지 똥물에 축여 놓았다고 하면서, 양반의 위신에 맞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

- 11 ‘양반들’은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시조 읊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반들’의 시조라는 것이 ‘말뚝이’가 부른 민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양반의 허위적인 자기 과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양반들로 인해 전체 양반들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이 상황과 어울리는 속담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이다.

|오답풀이 ㉠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뵈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의미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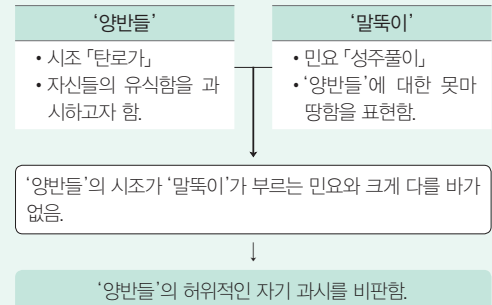
㉡ ‘고양이 쥐 생각’은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 또는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말이다.

㉤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도 되지 않는다’는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 12 ‘말뚝이’는 ‘양반들’이 시조를 읊자 자칭하여 민요를 부른다. 이는 ‘양반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부른 시조가 민요에 비해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양반들’의 허위적인 자기 과시를 비판하려는 행동이다.

되짚어보기 ‘양반들’의 시조 읊기



- 13 이 글에서는 ‘양반들’이 운자 놀이를 하는 모습과 파자 놀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유식함과 양반으로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글자 놀이를 하고 있으나,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는 말장난이나 수수께끼에 불과하다. 이렇듯 이 부분에서는 ‘양반들’의 허위적식을 비판하고 풍자할 뿐, 양반이 지켜야 했던 법도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 양반이 하는 놀이였던 운자 놀이, 파자 놀이가 나타나고 있다.

㉡, ㉢ ‘양반들’이 서로를 치켜세우며 유식함을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학식 및 교양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 여기에서는 ‘말뚝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반들’이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어, 스스로를 풍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14 이 글에서 ‘양반들’은 운자 놀이, 파자 놀이를 통해 유식함을 자랑하려 하지만, 그 허세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장사’ 역시 불필요한 한자어로 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배경지식+ 「택스에 동난지이 사요」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
제재	동난지이(계절)
주제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풍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거래 장면을 대화체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함. 감각적인 의성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15 새로운 인물인 ‘취발이’의 등장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6 ‘취발이’는 신흥 상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몇 백 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갖추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양반들’의 전령에 쉽게 잡혀 오므로, 강하게 저항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③ 재력이 있는 신흥 계층으로, 서민의 전형으로 보기 어렵다.

④ 신분제 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몰락한 양반인지 알 수 없으며, 제시된 장면에서는 특별히 희화화되지도 않는다.

17 ‘취발이’가 피신을 다니는 이유는 양반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랏돈 노랑돈 칠 푼을 잘라 먹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에서 ‘취발이’가 나랏돈을 횡령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취발이’를 힘이 세고 날랜 인물로 그림으로써, 당시 신흥 상인 계층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양반들’의 명령이 적힌 증서를 보고 ‘양반들’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 양반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말뚝이’는 ‘취발이’의 얼굴 대신 엉덩이를 ‘양반들’ 앞에 들이밀고 있다. 이는 양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8 ㉔는 비속어를 활용한 해학적 표현이다. 이 표현은 양반의 가혹한 횡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양반의 저급한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양반이 주로 평민 계층에서 쓰이던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계층 간의 지적 수준을 대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말뚝이’는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라고 말하며, 나라의 돈을 횡령한 ‘취발이’를 돈을 받고 풀어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는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시대상

-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아직 남아 있음.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있었음.

(3)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작품 가 춘향전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30~237쪽

- 01 ① 02 ④ 03 방자 04 ⑤ 05 ③ 06 ③ 07 ②
08 ① 09 ②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③
15 ④

01 ‘성춘향’은 자신이 퇴기의 딸이지만 기생은 아니며, 그런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르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한다.

오답 풀이 ② 당시 사회적으로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이성 교제가 지양되기는 하였으나, ‘성춘향’이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할 때에는 부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③ ‘성춘향’에게 혼인을 약속한 정인이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④ ‘성춘향’이 자신이 기생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부름을 거절하는 이유로 신분의 차이를 들지는 않았다.

⑤ ‘성춘향’은 단옷날 광한루에서 그네를 탔던 처자들이 많으므로, 자신이 그네를 탄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몽룡’이 유독 자신만을 부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나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되짚어보기 ‘이몽룡’의 부름에 대한 ‘성춘향’의 대응

- 단옷날에는 집 후원이 아닌, 밖에서 그네를 타는 처자들이 많으므로 흠이 되지 않음.
-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남.
- 퇴기의 딸이지만, 자신은 기생이 아니므로 양반이 부른다고 해서 갈 이유는 없음.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몽룡’의 부름을 합당하게 거절함.

02 ‘이몽룡’이 ‘방자’를 시켜 ‘성춘향’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성춘향’은 기생도 아닌 자신을 부른 것은 예법에 맞지 않음을 들어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성춘향’이 기생도 아닌 자신을 함부로 부를 리 없다고 한 점을 보아 양반들이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르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았던 일임을 알 수 있다.

② ‘성춘향’의 모친인 ‘월매’는 지금은 기생이 아니지만 전에 기생 노릇을 하던 퇴기이다. 그러나 ‘성춘향’은 자신은 기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③ ‘성춘향’이 한 말인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를 통해 단옷날 여성들이 그네를 뛰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몽룡’은 ‘성춘향’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방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03 ‘방자’는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를 오고 가며 두 사람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방자’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이몽룡’은 ‘성춘향’이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이유를 듣고 ‘성춘향’을 기특하게 생각한다. 이에 태도를 바꾸어 ‘성춘향’에게 정중하게 만남을 재요청하고 있다.

05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 은하수 물결 같다’에서 ‘성춘향’의 아름다운 용모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명매기결음’, ‘씨암탕결음’, ‘금자라 결음’ 등의 다양한 결음결이를 열거하여 ‘성춘향’이 걷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와 (다)에서 대조를 활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서 전지적인 신처럼 각 인물의 내면을 관통하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듯이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④ (나)와 (다)에서는 언어유희가 활용되지 않았고,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⑤ (나)와 (다)에서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며,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6 ‘성춘향’이 직접 ‘이몽룡’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몽룡’이 직접 ‘성춘향’을 데리러 가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러지 갑 자기 갈 마음이 난다.’를 통해 ‘성춘향’이 자발적으로 ‘이몽룡’을 찾아가려는 의지가 갑자기 생겼음을 알 수 있다.

②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를 통해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모친의 뜻을 몰라 가만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껴서서 ~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를 통해 ‘이몽룡’이 광한루 가까이 온 ‘성춘향’을 보고 좋아서 자세히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춘향 어머니’는 간밤에 자신이 꿈 톰과 ‘이몽룡’이란 이름을 연관 지어 둘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7 ①은 ‘성춘향’의 빼어난 용모를 나타낸 부분이다. 이를 표현하기에는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자태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고운 자태를 이르는 ‘화용월태(花容月態)’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각골통한(刻骨痛恨)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④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를 의미하는 말이다.

⑤ 낭중지추(囊中之錐)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의미하는 말이다.

08 ‘성춘향’의 말 중에서 ‘공명’은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을 의미한다. 즉 ‘이몽룡’이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고 충신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몽룡’이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09 ㄱ. ‘이몽룡’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당시 동성(同性) 간의 혼인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성춘향’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하여 재혼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라는 ‘성춘향’의 말에서 신분 차이가 사랑의 장애물임을 알 수 있다.

ㄹ. 이 글에서 혼인 전에 ‘이몽룡’이 하인을 시켜 ‘성춘향’의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10 [A]는 ‘성춘향’이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기 전에,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자신의 사랑관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③은 ‘황진이’가 지은 시조로, 푸른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임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푸른 산처럼 변치 않을 것이라며 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대나무를 통해 선비의 절개를 강조한 작품이다.

② 단풍 든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작품이다.

④ 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⑤ 모내기 of 흥겨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11 ‘성춘향’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조와 절개를 중시한다. 이를 들은 ‘이몽룡’은 ‘성춘향’의 생각이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여 마음에 들어 한다.

12 ‘이몽룡’은 ‘성춘향’을 만난 당일 저녁에 ‘성춘향’의 집에 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뒷부분 줄거리’를 통해 ‘성춘향’이 훗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고 ‘이몽룡’을 기다리며 옥살이를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의지가 굳건함을 알 수 있다.

② ‘성춘향’은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할 정도로 당돌하고, 자발적으로 ‘이몽룡’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몽룡’과의 만남에서는 단아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이몽룡’은 ‘성춘향’의 집을 보고, 집이 정결하므로 ‘성춘향’의 정절을 짐작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몽룡’이 지조와 절개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춘향 어머니’는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고 돌아오자,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면서 신분 상승을 기대한다.

13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외에 이면적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한다. 「춘향전」의 경우 표면적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여성의 굳은 정절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신분적 한계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부정한 관리에 대한 저항 의식을 다루고 있다.

14 ‘성춘향’이 “세상인심 고약하니 그만 놓고 가야겠소.”라고 말한 이유는 남녀 간의 교제를 당당히 드러낼 수 없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기 때문이다.

15 ㉔의 ‘만사’는 ‘여러 가지 온갖 일’을 뜻하는 말이다. ㉔의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을 의미하는 말은 ‘집중’이다.

작품 ㉔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38~247쪽

-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바닷물이 넘실대는 천 리 길의 먼 바닷가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등교 생도(들) 16 ㉔
17 신부님 18 ㉔ 19 ㉔ 20 ㉔

01 이 글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희곡이다. 희곡은 허구성이 있는 갈래이므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오류를 찾아 비판하며 감상하는 것은 적절한 감상 방법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속에 나타난 시대 상황을 찾아보며 감상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③ 희곡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며 감상해야 한다.

④ 희곡은 대사나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며 감상해야 한다.

⑤ 희곡에서 무대 장치나 소도구를 주제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감상해야 한다.

02 (가)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의 정원에 몰래 들어와 창가에 있는 ‘줄리엣’을 지켜보고 있다. 이때 ‘로미오’의 대사는 독백이므로, 아직까지는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3 ㉔은 원관념을 연결어 없이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은유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04 ㉔와 ㉔가 비유하는 것은 그 앞 문장인 ‘그녀의 빛나는 뺨들이 별들을 무색하게 만들겠지.’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즉, ‘대낮의 햇빛’은 ‘그녀(줄리엣)’의 빛나는 뺨’을, ‘등불’은 ‘줄리엣’의 빛나는 뺨 때문에 무색해진 ‘별(들)’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05 몬테규 가문과 캐플렛 가문은 원수지간으로,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집어보기 가문 간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 “왜 당신은 로미오예요?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 그럼 내가 캐플렛 성을 버릴 거야.”
- “당신 이름만이 나의 원수일 뿐. 비록 몬테규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야. ~ 로미오, 그 이름을 버려요.”
- “내가 누구라고 내 이름으로는 말해 줄 수가 없어. ~ 그건 너의 원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큰 걸림돌이 될 정도로, 두 가문의 갈등의 골이 깊음을 알 수 있음.

06 ‘줄리엣’은 ‘로미오’가 사랑을 위해 가문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로미오’ 가문의 반대를 꺾듯이 이겨 내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줄리엣’의 대사인 “당신은 누구요? 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남의 비밀을 엿들었으니.”를 통해 ‘줄리엣’은 ‘로미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줄리엣’은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그것이 싫다면 날 사랑한다고 맹세해요.”라며, ‘로미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③ ‘로미오’에게 이름을 버리라고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자신이 캐플렛 성을 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줄리엣’이 ‘로미오’의 출신 가문을 이미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로미오’와의 사랑을 위해 가문을 포기하겠다는 ‘줄리엣’의 각오를 느낄 수 있다.

07 희곡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를 ‘방백’이라고 한다.

08 ㉔는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이름이 아니라 ‘로미오’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외집어보기 ‘줄리엣’에 대한 ‘로미오’의 태도

- “이제부터 난 절대로 로미오가 아니지.”
- “이젠 내 이름이 미워. 그건 너의 원수니까.”

→ ‘줄리엣’을 위해 가문과 이름을 버리고 사랑을 택함.

- “그들의 칼 스무 자루보다도 너의 눈동자가 더 두려워!”
- “너의 사랑 없이 죽음을 미루며 사느니, 차라리 그들의 증오를 받고 목숨을 끊는 것이 한결 나야.”

→ ‘줄리엣’과의 사랑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음.

- 09 ‘로미오’는 ‘줄리엣’과의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 따라서 ‘로미오’가 ‘줄리엣’이 사랑을 너무 쉽게 고백한다고 여긴다는 ③의 설명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로미오’가 달을 걸고 사랑을 맹세하려 하자, ‘줄리엣’은 달은 한 달 내내 그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달을 걸고 맹세하면 ‘로미오’의 사랑도 달처럼 변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② ‘줄리엣’은 ‘로미오’에 대한 마음을 쉽게 고백한 자신을 ‘로미오’가 경박하게 생각할까 봐 염려하고 있다.

④ “체면치런 안녕이여! 날 사랑해?”라는 말을 통해 ‘줄리엣’이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로미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⑤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달을 걸고 맹세하려 하였다.

- 10 “네가 바닷물이 넘실대는 천 리 길의 먼 바닷가에 있 해도 그 보배를 찾아 모험에 나설 거야.”라는 ‘로미오’의 말은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 해도, ‘줄리엣’과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11 ‘줄리엣’은 ‘로미오’가 창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창문에 기대어 ‘로미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다가 ‘로미오’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줄리엣’은 ‘로미오’가 어둠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12 ‘로미오’는 ‘달’에게 자신의 사랑을 맹세하려고 하지만 ‘줄리엣’은 ‘달’이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있다. <보기>에서 ‘구름’은 빛이 좋으나 검기를 자주 하고, ‘바람’은 소리가 맑으나 그칠 적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꽃’은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푸른 듯 누르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달’과 같이 변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좋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물’은 ‘달’과 그 속성이 유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이 작품은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아 각각 그 자연물들의 특징을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덕을 노래한 시조이다.

갈래	평시조, 연시조, 고시조
성격	예찬적, 자연 친화적
제재	수(水), 석(石), 송(松), 죽(竹), 월(月)
주제	오우(五友)의 덕을 예찬함.
특징	• 총 6수의 연시조임. • 자연물의 특성에서 인간의 덕성을 이끌어 내어 예찬함.

- 13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사랑의 맹세를 나누자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줄리엣’은 ‘로미오’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바다에 빚대어 표현하기도 하고, 결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어디든 ‘로미오’를 따라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로미오’와 ‘줄리엣’의 심리

‘로미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을 위해서라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목숨보다도 ‘줄리엣’의 사랑이 소중한. • ‘줄리엣’과 사랑의 맹세를 나누고 싶은. • ‘줄리엣’과 헤어지고 싶지 않음.
‘줄리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미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이 부끄럽지만 진실함을 보여 주고 싶은. • ‘로미오’에 대한 사랑이 무한한. • ‘로미오’의 마음이 변할까 봐 걱정스러움. • ‘로미오’와 헤어지고 싶지 않음.

- 14 ‘줄리엣’은 “네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주었잖아. 하지만 또다시 주고 싶기도 해.”라고 말하며, ‘로미오’가 이미 ‘줄리엣’의 고백을 엿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네 사랑이 명예를 존중하고, 결혼을 바란다면 내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편에 회답을 보내 줘.”라는 ‘줄리엣’의 대사를 통해 결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줄리엣’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

② ‘줄리엣’은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넓고 깊으며 그것은 줄수록 가득가득 찬다고 하였다. 이는 ‘로미오’에 대한 ‘줄리엣’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면서도 무한하다는 의미이다.

③ ‘로미오’의 “너의 진정한 맹세를 나의 맹세와 바꾸는 일.”이라는 대사를 통해 그가 ‘줄리엣’과 헤어지기 전, 서로에 대한 맹세를 교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로미오’는 ‘줄리엣’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 지금은 밤인데 혹시 꿈이 아닌가? 지나친 행복에 겨워서 현실 같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 15 ‘로미오’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땐 수업을 마친 학생들처럼 마음이 들떴는데, 애인과 헤어질 땐 등교 생도들처럼 우울하다.”라는 대사를 통해, ‘줄리엣’과 만날 때의 심리를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 헤어질 때의 심리를 ‘등교 생도(들)’에 빗대고 있다.

- 16 이 글에서 ‘유모’는 집 안에서 ‘줄리엣’을 계속 부름으로써,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쉬운 이별을 재촉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17 ‘줄리엣’과 사랑을 맹세하고, 다음 날 결혼을 약속하기로 마음먹은 ‘로미오’는 그녀와 헤어지자마자 “이 길로 내 영혼의 인도자인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라며 ‘신부님’을 찾아가려 하고 있다. ‘영혼의 인도자’라는 표현에서도 ‘신부님’이 그간 ‘로미오’가 의지해 온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려움에 닥친 상황에서 ‘로미오’가 도움을 청하려는 대상이 ‘신부님’이라는 점에서도 그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줄리엣’이 ‘장난꾸러기가 잡고 있는 새’보다 멀리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로미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그가 혹시 자신의 곁을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㉔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줄리엣’과 이별하여 아쉬워하는 ‘로미오’의 마음이 반영된 표현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줄리엣’은 캐플렛 가문의 사람이라서, 원수 집안의 사람인 ‘로미오’와 당당히 연애할 수 없다. ‘줄리엣’은 이러한 제약을 가진 자신을 가리켜 ‘매어져 있는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로미오’는 ‘줄리엣’의 목소리를 ‘은방울’과 ‘부드러운 음악’에 빗대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줄리엣’은 아홉 시까지 사람을 보내 ‘로미오’에게 결혼에 대한 회답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이 이십 년은 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결혼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열른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④ ‘로미오’와 ‘줄리엣’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밤이었지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는 시간이 되었다.

20 ㉔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㉔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티끌 → 땀방석 → 동산’과 같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비중이나 정도를 점점 높여 뜻을 강조하는 표현인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②, ④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짝지어 문장에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인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 ‘서느런 옷자락’에서 촉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되짚어보기 대사의 의미

“매어져 있는 몸”	‘로미오’와 자유롭게 연애할 수 없는 ‘줄리엣’의 처지를 비유함.
“장난꾸러기가 ~ 멀리 가진 마라.”	‘로미오’를 놓칠까 걱정하는 ‘줄리엣’의 심리가 반영됨. → ‘로미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기를 바람.
“이별은 달콤한 슬픔”	‘로미오’와의 당장의 이별은 너무나 아쉬워 슬프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결혼에 대한 화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달콤함. → 역설적 표현

단원 평가 문제

본문 255~259쪽

01 ⑤ 02 ① 03 드디올세라, 점그를세라 04 ④ 05 ⑤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② 11 곳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12 ① 13 ③ 14 ⑤ 15 ⑤ 16 ㉔는
‘로미오’를, ㉔는 ‘로미오’가 갖고 있는 ‘소중한 완벽함’을 의미한
다. 17 ⑤

01 이 시가는 오늘날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로,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여음을 제외하면 3장 6구의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니고 있으나, 3·4조의 4음보 형식이 나타나진 않는다.

② 높임의 호격 조사 ‘하’가 나타나긴 하지만,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가에서 이상 세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가에서 화자는 한 명만 나타난다.

02 이 시가에서 화자인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달’에게 위탁하여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03 고대 국어 표현인 ‘-르세라’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어미로, ‘드디올세라’는 ‘디딜까 두려워라’, ‘점그를세라’는 ‘저물까 두려워라’로 풀이된다.

04 ‘돌’은 천지신명(기원의 대상)으로서, 어둠을 밝혀 남편의 무사 귀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다.

오답풀이 ① ‘저재’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다.

② ‘즌 디’는 ‘어두운 곳,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기>에서 말하는 진흙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돌하 노피곰 도드샤’는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돌으시어’라는 의미로, 이 시가의 시간적 배경이 달이 높이 뜰 수 있는 시간, 즉 밤임을 알 수 있게 한다.

⑤ ‘머리곰 비취오시라’는 ‘멀리멀리 비치시라’로 해석된다. 따라서 화자가 어둠이 밝아지기를 소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05 이 시가에는 행상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그리고 <보기>에는 대동강에서 이별한 임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시적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심정을 노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후렴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시가는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조선 시대에 한글로 기록되었으며, <보기>는 한시로서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③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의 부조리 또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는 ‘슬픈 노래’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되짚어보기 정지상, 「송인」

이 작품은 고려 시대의 문인인 정지상의 한시로, 이별의 슬픔을 자연물에 대응시켜 표현하였다.

갈래	한시, 7언 절구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슬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치법과 과장법을 통해 이별의 한을 극대화함. • 이별의 슬픔을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하여 강조함.

06 이 글에서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나, 각 재담의 내용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07 이 글은 “‘양반들’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들’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들’의 안심’의 구조를 보인다. ⑤는 ‘양반들’의 안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양반들’이 ‘말뚝이’에게 속아 안심하는 것과는 다르게 ‘2학년’은 ‘1학년’에게 속지 않고 있다.

08 종잇조각에 불과하지만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잡아들일 수 있는 ‘전령’을 통해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라)에서 ‘말뚝이’는 금전이 중요하므로, ‘취발이’를 살려 주고 돈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현실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나랏돈을 횡령한 ‘취발이’를 돈을 받고 풀어 준다는 점에서 양반과 신혼 상인 계층의 부정한 결탁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서민인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통해, 지배 계층에 저항하는 평민 세력의 출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에서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을 통해 ‘취발이’가 국고금을 횡령하여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다.

09 ㉠에서는 “시대가 금전이면”이라는 말을 통해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10 ㉠는 ‘양반’의 의미를 ‘개잡랑’의 ‘양’자와 ‘개다리소반’의 ‘반’자로 풀이한 언어유희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양반을 조롱한 표현이다. 하지만 ㉡는 대구법과 풍유법을 활용하여 양반을 비판한 것으로, 언어유희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서방(書房)’과 ‘서방(西方)’의 발음이 같은 것에서 착안하여 ‘남방(南方)’과 연결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③ 성씨 이(李)와 두 이(二)의 발음이 같은 것에서 착안하여 숫자 삼(三)과 연결한 언어유희이다.

④ 시집살이의 ‘집’과 개집살이의 ‘집’이 발음이 같은 것에서 착안하여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풍자한 언어유희이다.

⑤ 경전인 ‘육경’을 설명하며 ‘경’이 쓰였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물들을 나열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언어유희이다.

11 ‘춤’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글에서는 재담이 끝날 때마다 곳거리장단으로 춤을 춰 인물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12 이 글과 <보기>는 비속어인 ‘이눔’, ‘모가지’ 등을 사용하였다. 이 글과 <보기>는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13 (나)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심리 및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이를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성춘향’과 ‘줄리엣’은 각각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가문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서고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15 ㉠은 ‘로미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줄리엣’이, ‘로미오’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자 당황하여 한 말이다. 이는 상대방의 존재를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말이다.

16 ㉠와 ㉡의 뒤에 이어지는 ‘줄리엣’의 대사인 “로미오도 같아. 로미오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완벽함은 그대로 남을 것이요.”를 통해 ‘장미꽃’은 ‘로미오’를, ‘향기’는 ‘로미오’가 갖고 있는 ‘소중한 완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이 시가는 ‘악장’으로, 왕의 행차나 종묘 제향(宗廟祭享) 등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하던 음악의 가사이다. 향유층이 일부 귀족 계층에만 국한되었으며, 조선 건국 초기에만 향유되다가 널리 일반화되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되짚어보기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이 작품은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이다. 또한 한글 창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국문 시가이다.

갈래	악장, 송축가, 서사시
성격	송축적, 예찬적, 서사적
제재	조선 왕조의 창업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임. • 각 장이 2절 4구체로 구성됨(단, 제1장과 제125장 등은 제외). • 주로 전절에서 중국의 사적을, 후절에서 육조의 사적을 배열함.

(1)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1 주몽 신화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72~275쪽

01 ④ 02 ② 03 ④ 04 그, 이름하였다. 05 ① 06 자
부심, 일체감 07 ⑤ 08 ⑤

01 '금와'는 '유화'가 우발수에 온 사연을 듣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유화'를 가두었다. 따라서 '해모수'가 '유화'에게 반하여 '유화'를 가두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의 아들이다. 즉 천신인 '천제'의 손자이자, 수신인 '하백'의 외손자이다.

②, ③ '유화'는 부모 몰래 '해모수'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 때문에 우발수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⑤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피해 간 '해부루'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후, '금와'가 그의 왕위를 계승했다.

02 (나)에는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는 내용과,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금와'가 내다 버리는 내용이 나타난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앞의 내용은 '비정상적 출생'에 해당하고, 뒤의 내용은 '버려진 아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고귀한 혈통'에 해당한다.

③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비범한 능력'에 해당한다.

④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성장 후 시련'에 해당한다.

⑤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위업 성취'에 해당한다.

되짚어보기 영웅의 일대기 구조

고귀한 혈통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의 아들임.
비정상적 출생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남.
버려진 아이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림.
비범한 능력	'주몽'은 기골이 준수하고 활을 매우 잘 쏴.
성장 후 시련	'주몽'은 그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위협에 처함.
시련 극복	'주몽'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김.
위업 성취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高)'로 삼음.

03 '햇빛'과 '알'은 신화에서 상징적인 소재로 자주 쓰인다. 햇빛이 '유화'를 비추고, 이로 인해 '유화'가 잉태하여 알을 낳는 것은 인물이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늘을 생명과 권위의 원천으로 여기는 '태양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알'은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을 깨는 행위는 기존의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되짚어보기 신화적 상징성

'햇빛'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화'를 비추어 '유화'가 '주몽'을 잉태하게 함.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몽'이 알을 깨고 태어남. 현존하는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함.

04 (다)에서 동부여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몽'은 활을 매우 잘 쏘았으므로, ㉠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05 '금와'는 '주몽'을 죽여 후환을 없애자는 '대소'의 말을 듣고, '주몽'을 죽이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금와'가 '주몽'을 불쌍히 여겼다고는 볼 수 없으며, '좋은 말'도 '주몽'이 스스로 알아본 것이다.

되짚어보기 등장인물 간의 관계

'주몽'	대립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주몽)'을 버리게 한 '금와' '주몽'을 죽이고자 한 '대소'와 나머지 왕자들
	조력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주몽)'을 보호한 여러 짐승들 함께 부여를 떠나는 '오이' 등 세 사람의 벗 '주몽'에게 다리를 만들어 준 물고기와 자라

06 건국 신화는 나라의 기원, 시조(始祖),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밖으로는 자기 나라가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안으로는 신성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되짚어보기 건국 신화의 역할

-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각
-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인



나라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공동체적 일체감 조성

- 07 우리 민족 최초의 건국 신화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이고, 우리나라 소설의 출발점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5개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주몽 신화」에는 난생(卵生)이라는 기이한 탄생 화소와 천손 강림(天孫降臨), 기아(棄兒), 태양 숭배, 천부지모(天父地母) 등 고대 서사 문학의 다양한 화소가 나타난다.

②, ④ 「주몽 신화」는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 「주몽」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다. 이는 「홍길동전」이나 「유충렬전」과 같은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형식적인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③ 「주몽 신화」는 고대인들의 풍부한 상상력 및 사유 체계, 신화적 상징성을 엿볼 수 있는 건국 신화이다.

되짚어보기

「주몽 신화」의 문학사적 의의

신화적 화소	천손 강림(天孫降臨), 난생(卵生), 기아(棄兒), 태양 숭배 등의 화소가 등장함.
+	
서사 구조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여 줌.
↓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원형이 됨.	

- 08 「주몽」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라고 밝히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즉, 「주몽」이 수신인 「하백」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물고기와 자라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몽」이 달성한 위업은 시련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한 것이다.

② 「주몽」이 처한 시련은 「금와」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 한 것이다.

③ 「주몽」이 지닌 비범한 능력은 뛰어난 공술과 비상한 지혜이다.

④ 「주몽」이 「하백」을 숭배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작품 2 제망매가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80~281쪽

01 ④ 02 아야 03 ⑤ 04 ③

- 01 이 시가는 「이른 봄」, 「쁘러덜 님」, 「흐든 가지」 등과 같은 자연물에 비유하여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10구체 향가로 시상이 「기(1~4구) - 서(5~8구) - 결(9~10구)」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③ 이 시가의 작가는 신라 시대의 승려인 「월명사」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삶의 고뇌를 불교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가에는 당시 신라인의 사상과 감정, 정신세계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향찰은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이 시기도 향찰을 사용하였다.

- 02 이 시가의 결구에 제시된 감탄사 「아야」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시적 전환을 일으키며,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되짚어보기

낙구의 역할

- 결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 「아야」로 시작됨.
- 1~8구까지의 비극적 정서를 슬픔의 극복 의지로 전환함.
-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끔.

- 03 ㉔의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에서 화자는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도를 닦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종교적 수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㉔은 화자의 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② ㉔은 「이른 봄」에 빗대어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㉔은 「쁘러덜 님」에 빗대어 죽은 누이를 나타낸 것이다.

④ ㉔은 「흐든 가지」에 빗대어 화자와 누이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나타낸 것이다.

- 04 ㉔는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화자는 그곳에서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작품 3 동동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288~293쪽

01 ③ 02 1연 03 ④ 04 ② 05 ① 06 별해 부론 빗
07 ④ 08 ① 09 ① 10 ② 11 ㉔: 저미면 부론, ㉔: 사랑

- 01 이 시가는 「~여」, 「아으」와 같은 영탄적 표현과 직설적 어법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⑤ 1연은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을 표현하고, 그 이후의 본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1연에서 경어체와 부드러운 어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④ 임을 ‘노피 현 등(燈)스불’, ‘돌잇꽃’에 비유하고 있다.

- 02** 1연에는 임(임금)에 대한 송축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연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러한 1연의 이질적인 내용은 이 시가가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으로 유입될 때 변형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03** ‘나릿 물(㉠)’은 정월이 되자 얼었다 녹았다 하지만, 화자를 의미하는 ‘몸(㉡)’은 이와 대조적으로 녹여 줄 사람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과 넷물을 대비하면서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 04** ㉠은 높이 켜져 있는 등불에 비유하여 임의 훌륭한 인품을 예찬한 것이고, ㉡은 봄 산 가득 핀 진달래꽃에 비유하여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한 것이다. 따라서 ㉠과 ㉡은 공통적으로 임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되짚어보기 ‘임’을 비유한 시어

	2월령	3월령
시어	‘노피 현 등(燈)스불’	‘돌잇꽃’
시어의 특성	높이 켜져 있어 만인이 우러러봄.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님.
‘임’의 특성	인품이 훌륭함.	용모가 아름다움.

- 05** 4월령은 봄이 되자 화자를 다시 찾아온 꾀꼬리 새와 화자를 찾아오지 않는 임(‘녹사’)을 대조하면서, 오지 않은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② 5월령은 단옷날 먹는 익모초즙을 통해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6월령은 임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를 벼랑에 버려진 빛에 비유하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7월령은 백중 제물을 차려 놓고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8월령은 임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한가위라고 표현하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06** ‘별해 보른 빛’은 ‘벼랑에 버린 빛’을 의미하며, 10월령의 ‘저미연 보룻(저며 놓은 고로쇠)’과 더불어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가련한 신세를 나타낸다.
- 07** 화자는 백중날 제물을 쌓아 둔 제사상 앞에서 사랑하는 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백중(百種)(㉠)’에 임과 화자가 만나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은 임과 달리 화자를 찾아왔다. 화자는 이로 인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느끼고 있다.
② ㉡은 고려 시대에, 각급 관아에 속하여 기록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하급 실무직 벼슬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벼슬의 이름으로서 임의 신분을 알려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③ ㉢은 단옷날 먹는 익모초즙으로,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⑤ ㉤은 임이 함께하지 않아서 진정한 가위라고 할 수 없는 날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다.

- 08** ‘아으 동동(動動)다리’는 이 시가의 후렴구로, 각 연을 구분하면서(ㄱ) 구조적인 통일감을 준다. 또한 매 연에서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는(ㄴ) 역할을 한다. 하지만 ‘a-a-b-a’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며, 그중 ‘동동 다리’는 복과 그 밖의 악기를 흥내 낸 의미 없는 여음이다.
- 09** 9월령에서 ‘구월 구 일에 / 아아 약이라고 먹는 / 누런 국화꽃’(현대어 풀이)이라고 하였으므로, 국화를 이용하여 음식을 해 먹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0** 이 시가에는 월령에 따른 고려 시대의 세시 명절과 그에 따른 풍속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당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신흥 사대부들의 여흥을 읊은 것은 경기체가이다.
③ 자연과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소망이나 기원에 관한 내용은 설화 문학과 관련한 설명이다.
④ 이 시가에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의 정이 드러나고 있다.
⑤ 이 시가에서 대상을 익살스럽게 그려 내는 해학이나, 현실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꼬면서 표현하는 풍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배경지식+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무신의 난 이후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득의에 찬 삶과 향락적인 여흥을 위하여 창작한 시가 양식이다. 노래의 끝에 ‘景(경)이 엇더후니잇고’ 또는 ‘경기하여(景幾何如)’라는 구절이 되풀이되어 경기체가라고 불린다.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연이 중첩되어 한 작품을 이루는 연장 형식을 취함. • 3·3·4조, 4·4·4조 등의 3음보율이 기본임. • 명사나 짧은 형태의 한문구를 나열하고, ‘위 ~ 景(경)이 엇더후니잇고’라는 후렴구로 내용을 집약함.
작가	대부분 특권층인 신흥 사대부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들의 활기찬 감정과 의식 세계를 노래함. • 풍류적이고 향락적이면서도 사대부들의 삶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과시함.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된 형식미를 갖추고 있어 조선 시대까지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한 시의 형식임. • 운율은 음악적이지만, 내용은 문학성이 부족하고 교술적 성격을 지님.
주요 작품	「한림별곡」(한림제유), 「관동별곡」, 「죽계별곡」(안축)

- 11** 10월령의 ‘저미연 보룻’과 12월령의 ‘반(盤)잇 저’는 화자를 비유한 시어로, 화자가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버림받은 외롭고 가련한 처지의 여성임을 나타낸다.

-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⑤ 06 ① 07 ⑤
08 ⑤ 09 ③ 10 미타찰 11 ④ 12 ⑤ 13 ⑤ 14 ①
15 ①

01 (라)에는 ‘주몽’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 때문에 ‘주몽’이 겪게 되는 시련이 나타나 있다. ‘주몽’이 엄수에 이르러 자신이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자임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주몽 신화’가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에 기록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② (나)에서 ‘주몽’이 햇빛을 통해 잉태되고 알로 태어나는 기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③ (다)에서 ‘주몽’이 매우 활을 잘 쏘아서 그 나라의 풍속에 따라 ‘주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⑤ (마)에서 ‘주몽’이 병사들을 따돌리고 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02 이 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런 위업 달성과 관련한 내용이 표제로 적절하다. 부제는 이 표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몽’이 ‘천제’의 손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절하다.

03 <보기>의 내용은 ‘주몽’의 고귀한 혈통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고구려 건국 시조이자 국가 구성원의 숭배 대상인 ‘주몽’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공동체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을 피해 ‘주몽’이 도망칠 때, ‘주몽’의 일행이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오답풀이| ① ‘금와’는 ‘주몽’의 적대자로, ‘알’을 버리게 하였다.

②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자 ‘주몽’의 아버지로, ‘주몽’에게 고귀한 혈통을 물려주었다.

③ ‘대소’는 ‘주몽’의 적대자로,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⑤ ‘기마병’은 ‘주몽’의 적대자로, ‘주몽’을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그 일행을 뒤쫓았다.

05 ‘주몽 신화’의 ‘주몽’과 ‘단군 신화’의 ‘단군’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범인(凡人)과는 달리 신이한 능력을 지녔으며,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위업을 이룬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신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진 신적 존재의 탄생과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 내력을 밝히고 있다.

갈래	건국 신화	성격	서사적, 상징적
제재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		
주제	단일 민족의 역사성과 홍익인간의 이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인 - 환웅 - 단군’에 이르는 삼대기(三代記) 구성이 나타남. • 천손 하강(天孫下降), 천부 지모(天父地母)의 화소를 지님. 		

배경지식+ 설화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口傳)되어 온 이야기로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 낸 이야기이다. 신화·전설·민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화	전설	민담
개념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진, 신적 존재의 탄생 및 활동에 대한 이야기	신적인 요소 없이, 구체적인 배경과 증거물을 가진 이야기	흥미 위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성격	신성성, 위엄성	신빙성, 지역성	흥미성, 교훈성
배경	아득한 옛날,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뚜렷하지 않음.
증거물	포괄적 증거물	개별적 증거물	없음.
주인공과 그 행위	신 또는 신적 존재, 초능력 발휘	비범한 인간,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	평범한 인간이나 동물, 운명 개척
결말	신성한 업적 달성	대체로 비극적 결말	행복한 결말
전승 범위	민족	특정 지역	전세계적

06 10구체 향가는 시상을 3단(4구 - 4구 - 2구)으로 전개하며, 절구(낙구)의 첫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형식적 특징이 있다.

|오답풀이| ② 제시된 설명은 악장에 관한 것이다.

③ 제시된 설명은 고려 가요에 관한 것이다.

④ 제시된 설명은 고대 가요에 관한 것이다.

⑤ 제시된 설명은 시조에 관한 것이다.

07 이 시가에서는 누이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한 화자의 놀람과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또한, ‘흐든 가지라 나고 / 가는 곧 모드론더.’에서 혈육을 잃은 애틋한 정과 삶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미타찰(彌陟利)아 맛보올나 /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라며 종교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다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에 대해 화자가 절대자에게 섭섭함을 느낀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㉔의 ‘도(道) 닳가’는 승려인 화자의 종교적 수양과 극복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저승을 찾아가는 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아야’는 낙구에 사용된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시적 전환을 일으킨다. 그러나 화자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등의 내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10 이 시가에서 이승의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는 ‘이에’이다. 반면, ‘미타찰’은 저승인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공간이자 누이와 재회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11 이 시가와 <보기>는 향가 작품이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추모의 정을 극대화하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에서는 ‘이른 부름’, ‘뜨러질 닢’을 통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서는 ‘봄’, ‘다뫼 무술’을 통해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시가는 신라 시대의 승려였던 ‘월명사’가, <보기>는 신라 시대의 화랑이었던 ‘득오’가 지은 작품으로 이 시가들을 통해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③ 이 시가에서는 ‘아야’를, <보기>에서는 ‘낭(郎)이여’를 활용하여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이므로, 우리 민족이 외래문화인 한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되짚어보기 득오, 「모죽지랑가」

이 작품은 화랑이었던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추모의 정을 노래한 향가이다.

갈래	8구체 향가
성격	추모적, 예찬적, 서정적
제재	‘죽지랑’의 인품
주제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그에 대한 추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의 세계를 보여 주는 작품임. • 주술성이 없는 순수 서정시로,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극진함.

12 이 시가의 서사인 1연은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본사인 2~13연은 임과 이별한 후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이 시가가 고려 시대 때 민간에서 불리다가 조선 시대 때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며,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과 여음 및 후렴구가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비 전승 과정에서, 단일 작자가 일관되게 창작한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3 9월령의 ‘구월(九月) 구 일(九日)에 / 아으 약(藥)이라 먹논 /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 새서 가만한애라’를 통해 국화로 음식을 해 먹는 중양절을 맞았으나 임이 없어 국화꽃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9월령에서 제시된 명절은 ‘중양절’이다.

오답 풀이 ① 2월령에는 등불을 켜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의식을 하는, 불교적 성격의 국가적 행사인 ‘연등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② 5월령에는 단오떡을 해 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고 남자는 씨름을 하며, 익모초즙을 먹는 ‘수릿날(단오)’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③ 6월령에는 나쁜 일을 떨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인 ‘유두’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④ 8월령에는 ‘가배(한가위)’를 맞이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되짚어보기 「동동」에 나타난 세시 명절

	세시 명절	개념
2월령	연등회	석가모니의 탄생일에 불을 켜고 복을 비는 의식을 함.
5월령	수릿날(단오)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 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함.
6월령	유두일	음력 6월 보름날로, 나쁜 일을 떨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음.
7월령	백중(백중날)	승려들이 부처를 공양하는 날임.
8월령	가배(한가위)	음력 8월 보름날로,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냄.
9월령	중양절	음력 9월 9일로, 이날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놀았음.

14 ‘아으 동동(動動)다리’는 의미 없는 후렴구로, 이 부분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고하며 축원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5 이 시가와 <보기>의 갈래는 고려 가요이다. <보기>는 대부분의 고려 가요처럼 3·3·2조의 기본 음수율과 3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지만, 이 시가는 예외적으로 기본 음수율과 음보율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이 시가와 <보기>는 모두 고려 가요로, 구전되다가 후대에 기록되었다.

③ 이 시가와 <보기>의 화자는 이별한 임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다.

④, ⑤ 이 시가와 <보기>는 연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 시가에는 ‘아으 동동(動動)다리’가, <보기>에는 ‘위 증줄가 대평성대(太平聖代)’가 후렴구로 쓰였다. 이러한 후렴구는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조선 시대의 문학

작품 1 이생규장전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314~321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환신 06 ⑤ 07 ⑤
08 ⑤ 09 ④ 10 ④ 11 원앙 12 ④ 13 ① 14 ③

01 이 글은 『금오신화』에 실린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이고, 공간적 배경은 개성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고려 말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홍건적의 난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이 서생’과 ‘최 여인’은 이별을 하게 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시도한다.

② 폐허가 된 ‘최 여인’의 집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 서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 서생’의 심리에 대해 전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발단~위기)에서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후반부(절정~결말)에서는 비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되짚어보기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이별

	만남	이별
첫 번째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 받은 뒤 사랑하는 사이가 됨.	‘이 서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은 이별함.
두 번째	‘최 여인’ 부모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혼인함.	홍건적의 난으로 ‘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함.

02 ‘이 서생’은 아내인 ‘최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사랑의 감정이 앞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서생’이 ‘최 여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은 ‘이 서생’이 폐허가 된 집을 확인하고, 지난날 그곳에서 즐겁던 일을 떠올려 보니 한바탕 꿈만 같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다. ‘일장춘몽(一場春夢)’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한 한자 성어이므로 ㉠의 상황을 잘 표현해 준다.

오답풀이 ① 격세지감(隔世之感)은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망운지정(望雲之情)은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일희일비(一喜一悲)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 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남’을 의미하는 말이다.

04 (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산(家産)에 미치자 ‘최 여인’은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튿날에는 ‘이 서생’과 매장한 곳에 함께 가서 금은과 재물을 찾아온다. 이로 보아 ‘최 여인’이 가산(家産)을 묻는 질문에 망설이거나 대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인연을 맺어 행복하게 지냈던 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함께 지낸 몇 년의 생활을 압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② ‘최 여인’은 ‘이 서생’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최 여인’의 상황을 안쓰러워하는 ‘이 서생’의 표정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최 여인’의 이야기에서 정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서생’에 대한 ‘최 여인’의 굳은 절개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는 슬프지만 의지를 표현한, 비장한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④ ‘최 여인’은 양가의 딸로서,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라왔고 시서와 예법을 배워 규중의 법도를 익힌 인물이다. 따라서 ‘최 여인’을 맡은 배우에게는 양가 규수로서의 말투와 예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 재결합하는 사건은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점에서 전기성(傳奇性)이 두드러진다. 이는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을 강조하며, 작품 전체에 신비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나타난 전기성(傳奇性)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 재결합함.



-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점에서 전기성이 두드러짐.
-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을 강조하며, 작품 전체에 신비한 분위기를 부여함.

06 ‘최 여인’은 삼세의 인연을 들며 ‘이 서생’을 끝까지 모시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삼세의 인연’은 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의 세 가지를 가리키며 불교의 윤회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둘의 영원한 인연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07 (나)의 맥락상 봄바람은 밝고 긍정적인 의미를, 깊은 골짜기는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어둡고 추운 깊

은 골짜기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온 것에 빗대어,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왔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8 ‘최 여인’의 노랫말 중에서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는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거울이라는 실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 여인’은 죽은 사람이라서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천상의 물건인 거울을 깨뜨려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09 ‘최 여인’은 저승길은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결국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 서생’에게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사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결말 부분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남.

10 (마)에 제시된 노래는 서사적인 사건의 전개 속에서 서정적인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되짚어보기 삽입된 노래의 기능

정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줌. •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서사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 •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함. •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함.

11 ‘최 여인’의 노래 1절에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소재는 ‘원앙’이다. ‘원앙’은 도적 떼로 인한 싸움터에서 몰죽음을 당하고 짝을 잃었다고 하여 두 사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2절에서는 ‘깨진 거울’이 두 사람의 이별을 의미한다.

12 이 글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인 여타 고전 소설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 이는 작가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

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김시습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13 (바)에서 ‘최 여인’은 자신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이 서생’에게 미칠 허물을 염려하며 저승의 명부에 따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최 여인’의 모습을 잘 소개한 내용은 ①이다.

되짚어보기 ‘이 서생’과 ‘최 여인’의 특징

‘이 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최 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 ‘최 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함.
‘최 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서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 •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지적 인물임. • ‘이 서생’을 위해 저승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를 사랑함.

14 ‘이 서생’이 ‘최 여인’에게 저승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이지, 앞으로 닥칠 난리를 걱정하여 ‘최 여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다.

작품 2 시조 네 편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328~331쪽

01 ① **02** ⑤ **03** ② **04** 천 리 **05** ② **06** ④ **07** 창 **08** ③

01 (가)는 ‘수양 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계유정난 때에, ‘수양 대군’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화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쓴 시조이다. 화자는 이 시가에서 당대 권력(‘수양 대군’)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 태평성대에 대한 기대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세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한 화자의 굳은 의지를 ‘백이’와 ‘숙제’와 관련된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낸 절 의가이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절의라는 당대 사대부의 유교적 가치가 나타나 있다.

④ 이 시가의 갈래는 평시조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적인 시조 형식인 3장 6구 4음보를 따르고 있다.

- 02 (가)의 ‘수양산’은 중국 주나라 때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산이지만, ‘수양 대군’을 의미하기도 한다. ‘채미’는 고사리를 캐어 먹는다는 뜻이지만, ‘수양 대군’이 주는 녹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뉘’는 중국 주나라의 ‘무왕’을 뜻하지만, ‘수양 대군’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에서는 하나의 시적 표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ㄷ). 또한 일반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절의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통용되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ㄹ).

되짚어보기 (가)의 표현상의 특징

- 중의적 의미를 지닌 시어의 사용

‘수양산’, ‘채미’, ‘뉘’	중의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냄.
---------------------	---------------------------------------

-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의 사용

‘이제’에 대한 비판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백이’와 ‘숙제’를 탓함으로써 자신의 절개와 의지를 강조함.
----------------	---

- 03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때’인 ‘봄’과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인 ‘가을’을 바탕으로 임과 헤어진 시간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아 (나)의 화자가 임과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나)의 ‘천 리’는 임과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임과 이별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05 (다)의 작가는 조선 중기의 사대부로,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 연시조 형식을 활용하여,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라)의 작가는 알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의 서민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평시조의 기본 형식에서 두 구 이상이 길어진 사설시조 형식을 활용하여,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시조는 조선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사대부에서 평민층으로 작가층이 확대되고,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시조의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장형화가 이루어지는 등 형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 06 (다)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이며 세속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 나른 녀나른 일’은 자연 속에서의 삶과 대립적인, 속세에서의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모두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과 관계가 있다.

되짚어보기 (다)의 소재의 의미와 화자가 지향하는 삶

	자연	속세
1수	‘산수’, ‘뉘집’	‘그 모른 놈들’
2수	‘보리밥 못 먹’, ‘바윗 곳 뉘?’	‘그 나른 녀나른 일’
4수	‘임천한흥’	‘삼공’, ‘만승’

↓
대립되는 소재를 통해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냄.

- 07 (라)의 화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슴’에 ‘창’을 내어 여닫고 싶다는 발상으로 표출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라)의 참신한 발상을 통한 문학적 표현

발상 ‘가슴’에 ‘창’을 냄.

↓
외부와 연결해 주는 ‘창’의 속성을 통해
마음에 ‘창’을 내어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 08 ㉔은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② ‘하암’은 향암(鄕巖), 즉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뜻하는 말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낮춘 겸손함의 표현이다. 또는 화자의 소박한 뜻을 모르는 남들의 눈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④ ‘a-a-b-a’의 문장 구조(반복법)를 통해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소재인 창 종류와 부속품을 나열하여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3 속미인곡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340~343쪽

- 01 ⑤ 02 임금(군주) 03 ② 04 ① 05 ② 06 ④
07 ⑤

- 01 이 시가는 탄핵을 받아 낙향해 있던 작가가 자신의 지극한 연군의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하여 표현한 가사이다.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되짚어보기 여성 화자 설정의 효과

작가의 상황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던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군(戀君)의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하여 표현함.
여성 화자 설정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취함.
효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음.

- 02 은거하고 있던 작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임’과, 제목에 쓰인 ‘미인(美人)’은 임금이나 군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임금(군주)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임금(군주)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통해 연군의 정을 표현하였다.

되짚어보기 제목에서 ‘미인(美人)’의 의미

사전적 의미	• 아름다운 사람 • 재덕(才德)이 뛰어난 사람
작품에서의 의미	• 표면적 의미: 임, 연인 • 본질적 의미: 임금, 군주

- 03 ㉠과 ㉡은 모두 작가의 분신으로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은 이 글의 보조 화자이고 ㉡은 중심 화자이다. 따라서 ㉠은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하며, 극적인 결말을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은 작품의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갑녀’와 ‘을녀’의 역할

‘갑녀’	•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임. • 작품의 전개를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함. •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함.
‘을녀’	•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화자임. •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함. •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함.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로, 두 화자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됨.

- 04 이 시가의 갈래인 가사는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4음보의 연속체 형식으로, 일정한 리듬감을 형성한다.

오답 풀이 ② 조선 전기의 가사의 작자층은 대부분 사대부로, 강호가도나 연군지정 같은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이 시가의 주제 역시 연군지정으로 충신연주지사(忠臣 연주지사)에 해당한다.

③ 이 시가는 한자 어구의 사용을 자제하고, 화자의 애틋한 심정을 소박하고 진솔한 우리말로 표현함으로써 가사 문학의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④ 가사는 시조와 달리 행수(行數)에 제한이 없어 화자의 감정과 체험을 길게 서술할 수 있다.

⑤ 주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부적인 인물과 장면을 설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 05 ‘빈 비’는 ‘빈 배’를 뜻하며, 사공은 없고 빈 배만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반벽 청등’은 ‘벽 가운데 걸린 푸른 등’을 뜻하며, 화자가 차가운 초가집에서 외로이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시어들은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06 ㉠, ㉡, ㉢, ㉣은 임과 ‘을녀’의 사랑을 막는 방해물이다. ‘을녀’는 임의 소식이라도 듣고 싶고, 멀리서라도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자 산에도 오르고 물가에도 나가 보지만,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계성’ 때문에 임을 만날 수 없다.

- 07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 임의 옷을 적시며 화자와 임의 거리를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으나, 임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해당한다.

②, ③ ‘낙월’은 지는 달로,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다. 즉, 임과 함께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내포하는 것으로, 화자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④ ‘구준비’는 멀리서 비추기만 하는 ‘낙월’과 달리, 직접 임의 옷을 적실 만큼 임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이다.

되짚어보기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

화자가 임에게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는 매개체	
‘낙월’ (지는 달)	• 생각의 주체: ‘을녀’ • 의미: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임과 함께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내포함. • 성격: 수동적, 소극적
‘구준비’ (오랫동안 내리는 비)	• 생각의 주체: ‘갑녀’ • 의미: 임의 옷을 적시며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함. • 성격: 능동적, 적극적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는 ‘을녀’에게 차라리 ‘구준비’가 되기를 권하는 ‘갑녀’의 모습에서 ‘갑녀’가 ‘을녀’보다 적극적인 애정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작품 4 임경업전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352~361쪽

-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8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0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①

0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의 행적과 무용을 들려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이 글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군담 소설로,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⑤ 이 글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호국(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이는 실리보다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가치관

- ‘임경업’이 명나라를 대신해 호국(청나라)에 침입한 가달을 물리치고, 호국의 강압으로 명나라를 칠 때도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하려고 하는 등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보임.
- ‘임경업’은 호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대적 태도를 지님.

↓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남.

02 (가)에서 ‘세자’와 ‘대군’이 호국의 인질로 잡혀갔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호국이 ‘임경업’을 대신할 인질로 그들을 잡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호국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에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임경업’을 인질로서 원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임경업’은 가달의 침략을 받은 호국을 도와 승리를 이끌었다. 가달과의 전투에서 그의 용맹함에 두려움을 느낀 호국은 조선을 침략할 때, ‘임경업’이 부윤으로 있는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들어 왔다.

④, ⑤ ‘호왕’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임경업’의 충의에 감복하여 ‘호왕’은 ‘임경업’의 요구대로 ‘세자’와 ‘대군’을 풀어 주었다.

03 (가)에서는 ‘임경업’과 ‘호왕’이 갈등하는 상황을 인물의 대화를 통해 전개하며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04 ‘세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경업’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애석함을 느낀다. 이에 ‘임경업’은 ‘세자’에게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빠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라며 ‘세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세자’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임경업’과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그 까닭을 ‘임경업’이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호왕’은 목숨을 걸고 ‘세자’와 ‘대군’을 구하려 했던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풀어 준다.

②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호왕’의 말에 금은과 같은 재물을 청한 ‘세자’와 달리, ‘대군’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여 조선에서 잡혀 온 백성들을 청한다.

④ ‘임경업’은 ‘세자’와 ‘대군’을 다시 만날 때, 울면서 절한다. 이는 그동안 ‘세자’와 ‘대군’을 염려하고 그리워했던 ‘임경업’의 충절을 보여 준다.

⑤ ‘세자’와 ‘대군’은 하직 인사를 하는 ‘임경업’에게, 그를 두고 가야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05 ‘세자’와 ‘대군’은 ‘임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에 이른다. 따라서 ‘임경업’이 백두산 아래까지 ‘세자’와 ‘대군’을 배웅하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나)는 크게 ‘세자’와 ‘대군’이 ‘임경업’과 만나는 장면,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과 함께 ‘호왕’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세자’와 ‘대군’이 떠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관원에게 ‘임경업’의 소식을 들은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며 궁문 밖으로 나와 ‘임경업’을 기다리고(㉠), ‘임경업’을 만난 후에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장면은 이들이 조선에 돌아가기 전에 ‘호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호왕’이 그들에게 풀어 주는 까닭을 설명하며 각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마지막으로 ‘세자’와 ‘대군’이 ‘임경업’을 두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06 ㉠은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갇혀 ‘임경업’의 소식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뜻하는 ‘학수고대(鶴首苦待)’이다.

▶오답풀이 ①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비분강개(悲憤慷慨)는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07 (라)에서 ‘임경업’이 칼을 쓰고 잡혀가는 모습을 본 의주 백성들은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한다. 따라서 의주 백성들이 ‘임경업’이 잡혀간 까닭을 눈치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임금은 ‘임경업’을 ‘만고에 충신’으로 칭하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등 ‘임경업’에 대한 굳은 신의를 보여 준다.

- ② ‘김자점’은 자신에게 이로움이 없는 ‘임경업’을 경계하며, 역을 한 누명을 씌운다.
- ③ ‘임경업’이 누명으로 잡혀가자, 그의 군사들은 ‘임경업’의 지극한 높은 충성을 언급하며 그를 안심시키고 ‘임경업’의 옆을 차마 떠나지 못한다. 이를 통해 군사들이 평소에 ‘임경업’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⑤ ‘임경업’은 위기 상황에도 군사들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08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직접 작품에 끼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난다.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작품 속에 직접 남기거나, 인간 생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털어놓는 것을 말한다. (라)에서는 서술자가 ‘산천 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산천초목에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다.

09 이 글에서 ‘김자점(㉠)’과 ‘임경업(㉡)’은 서로 대립되는 인물로, 중심 갈등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인물의 설정은 각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는데, ‘김자점’의 비도덕성은 ‘임경업’의 인간적인 면모와 성품을 부각시킨다.

▶오답 풀이 ① ‘김자점’은 간신의 전형을, ‘임경업’은 충신의 전형을 보여 준다.

③ ‘김자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충신인 ‘임경업’을 모함하면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④ ‘김자점’은 역모를 일으켜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인물이다. 반면 ‘임경업’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자점’에게 ‘임경업’은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다.

⑤ ‘김자점’과 ‘임경업’은 모두 평면적 인물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읽어보기 대립적 인물의 설정과 그 효과

‘김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모를 일으켜 자신이 왕이 되려 함. • 임금의 명령에 반하며 ‘임경업’에게 해를 가하려 함.
‘임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백성들을 안심시킨. • 위기 상황에도 군사들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함.

↓

각 인물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으며, 갈등 관계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10 [A]는 ‘김자점’이 죄 없는 ‘임경업’을 대역 죄인이라고 모함하며 임금에게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두리이까.”라는 의문형 문장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는 ‘임경업’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B]는 ‘임경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로의 의도가 반대되고 있다.

② [B]의 ‘과인’은 덕이 적은 사람이란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이다.

③ [B]는 ‘임경업’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임경업’을 지켜 주고자 하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임경업’을 대역 죄인이라고 단정하여 ‘임경업’을 처벌할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다.

11 임금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김자점’이 ‘임경업’을 전옥에 가두고 옥졸들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자점’의 위세가 온 조정에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뜻, 즉 운명으로 여기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는 ‘임경업’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에서 ‘임경업’의 깊은 충정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절을 중시한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김자점’의 흥계를 눈치채기 전까지는 별 저항 없이 감옥에 있다가, 자신이 부당하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바로 감옥에서 나와 입결한다. 이는 ‘임경업’이 비범한 영웅의 풍모를 지녔음을 보여 준다.

④ 임금은 ‘김자점’의 흥계로 ‘임경업’이 잡혀 있었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임경업’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다.

⑤ ‘임경업’은 병자년에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르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여 북경에 잡혀 있었다.

13 ‘김자점’의 흥계로는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아 전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명령하여 ‘임경업’에게 물도 주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이 있다.

❖읽어보기 ‘김자점’의 흥계와 위세

‘김자점’의 흥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아 전옥에 가둠. • 옥졸들에게 ‘임경업’에 대해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분부함.
-----------	---

↓

임금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임금이 모르게 ‘김자점’의 흥계가 통할 정도로 ‘김자점’의 위세가 온 조정에 미침.

14 [A]는 ‘임경업’이 자신의 지난날을 임금에게 고하는 말로, 무인년부터 병자년까지의 일과 ‘김자점’의 흥계로 옥에 갇혔던 일 등을 요약하며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지난날의 사건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ㄴ. 긴 호흡의 문체로 지난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15 (사)에서 ‘김자점’의 흥계를 알게 된 임금이 ‘김자점’을 꾸짖으며, ‘김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두 금부에 가두라

고 하였다. 따라서 ‘김자점’이 화가 나 자신의 하수인들을 금부에 가두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6 이 글에서 ‘상’은 ‘김자점’의 부도덕함과 불순함을 질책하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명분에 집착했던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김자점’은 사리사욕을 일삼는 지배층으로, 민중의 희망이었던 ‘임경업’을 죽게 만든 인물이다. 따라서 ‘김자점’의 죽음에서 집권층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살펴볼 수 있다.

② ‘임경업’은 결국 죽지만,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임금은 죽은 뒤라도 그의 충의를 포상한다. 이는 지배층의 횡포에 좌절된 민중적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을 위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임경업’은 그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진 명장이었지만,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다. 이를 통해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하게 한 조정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이 글은 ‘임경업’과 ‘김자점’의 행적을 토대로 창작된 소설로,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되짚어보기

작품의 창작 의도

사실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경업’과 ‘김자점’ 등은 실존 인물임. • 실제 사건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함.
허구적 요소	‘임경업’이 가달을 친 일, ‘임경업’이 ‘호왕’의 부마 제의를 받은 일과 ‘세자’ 및 ‘대군’을 구해 낸 일 등은 허구의 사건임.



병자호란은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임을 강조하여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던 심리가 창작의 이유가 됨.

- 17 ㉠은 ‘임경업’이 자신을 모함하고 전옥에 가둔 ‘김자점’의 흥계를 밝히기 위해 ‘김자점’을 추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임경업’이 노발대발하며 호통을 치는 듯한 어조로 낭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원 평가 문제

본문 368~373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임천한흥 09 ④ 10 ① 11 구준비 12 ④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④ 18 ㉠: 역신, ㉡: 충신 19 ④

- 01 이 글은 주인공들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의 긴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른 고전 소설과는 달리 주인공들의 재회가 허무하게 끝나는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든 것이 덧없고 항상 변한다고 보는 관념인 불교의 무상관(無常觀)과, 당

시에 있었던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ㄴ. 현실 세계의 이야기와 비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구분되는 이중 구조의 형식을 통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02 (다)에서 이별을 고하는 부인의 말에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서생’에게 부인과의 이별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폐허가 된 아내의 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과 집을 잃은 ‘이 서생’의 슬픔과 참담함을 환기한다.

② ‘도적의 무리’로 인해 ‘이 서생’과 그의 부인은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서생’의 부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③ 아내와 재회한 ‘이 서생’은 벼슬도 구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늘 아내와 함께하는데, 이는 ‘이 서생’이 부귀공명보다 사랑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이 서생’의 부인은 운명의 법도에 따라 저승으로 돌아간다.

- 03 [A]는 ‘이 서생’의 부인이 이별을 고하며 부른 한시로,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해야 하는 여인의 슬픈 심리가 서정적으로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헤어져야 하는 인물의 처지와 슬픔이 담겨 있다.

③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영원히 만나지 못할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④ 도적 떼로 인해 짝을 잃어 해했던 두 사람의 과거를 비유적 표현으로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⑤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였다.

- 04 ㉡은 ‘회왕’ 곁에 항상 머물 수 있었던 ‘무산 선녀’와 달리 자신은 ‘이 서생’에게 다시는 올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에서는 ‘이 서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이 서생’ 부인의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 05 두 글은 일상적 세계를 초월한 남녀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전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표현상의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은 깊이 서술되지 않는 반면, 이 글의 인물들의 심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려진다. 또한 인물들이 시련에 순응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보기>의 인물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는 소설 갈래의 특징을 이 글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되짚어보기

작자 미상, 「호원」

이 작품은 신라 때 처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설화이다.

갈래	설화(사원 연기 설화)
성격	불교적, 전기(傳奇)적
제재	호랑이의 살신성인(殺身成仁)
주제	'김현'과 호랑이 여인의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함. • 변신형 설화 모티프를 사용함. •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남.

- 06 (가)는 '세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한 작가의 의지를 중국의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고, (다)는 안분지족·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중국의 '소부'와 '허유'의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종의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당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은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에서 '수양산', '채미', '늪'은 모두 종의적 표현으로 '수양산'은 산 이름과 '수양 대군(세조)'을, '채미'는 고사리를 캐어 먹는 것과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늪'은 주나라의 '무왕'과 '수양 대군(세조)'을 가리킨다.

③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 것은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의 '이화우'와 '추풍낙엽'은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

④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한 것은 (마)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마)는 맑고 깨끗한 하늘과 대조하여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라)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라)의 화자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고자 가슴에 창을 내려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화자의 정서가 매우 절박한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한 설정이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은 독자들에게는 다소 엉뚱한 발상으로 여겨져 화자의 절박함과 별개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07 (마)는 고시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지어진 작품으로 고시조와 달리 초장, 중장, 종장을 연으로 나누어 썼다. 반면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라는 점과 4·4조 또는 3·4조로 4음보를 이루는 점은 고시조의 형식을 따라 그대로 유지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의 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② (나)의 창작 계층은 기녀로, 사대부에 한정되었던 시조의 창작 계층이 기녀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③ (다)는 초·중·종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를 한 연으로 하여 2연 이상 중첩된 형태인 연시조에 해당한다. 자연 예찬, 유교 윤리의 전파 등으로 내용이 확대되면서 시조는 연시조의 형태로 향유되기도 하였다.

- ④ (라)는 작가 미상의 작품이나, 사용된 시어의 성격을 볼 때 창작 계층이 평민층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민이 시조의 창작 계층으로 들어오면서 인간 생활의 구체적인 실상과 진솔한 생활 감정이 보다 자유롭게 나타나게 된다.

되짚어보기

이희승, 「벽공」

'벽공'은 '푸른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찬하고 있는 현대 시조이다.

갈래	현대 시조
성격	감각적, 묘사적, 영탄적, 예찬적
제재	가을 하늘
주제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과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인간사에 대조하고 여운을 줌. • 초장, 중장, 종장을 연으로 나누어 쓴 구별 배행 시조임. •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 감각적 수법이 엮임.

- 08 (다)의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다. 이를 대표하는 시어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뜻하는 '임천한흥(林泉閑興)'이다.

- 09 (라)의 화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창을 내어 여닫고 싶다는 소망으로 표출하고 있다. 즉 가슴을 꼭 막힌 방에 비유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라)의 '창'은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10 이 시가는 임금을 천상에서 인연이 있었던 연인으로 설정하고, 그 임을 잃고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두 선녀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가사이다.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①이 이 시가를 소개할 문구로 가장 적절하다.

- 11 <보기>의 설명처럼 '구준비'는 화자가 임에게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는 매개체이다. 임의 옷을 적시며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화자의 그림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갑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다.

- 12 ㉠은 '을녀', ㉡은 '갑녀', ㉢은 '님(임금)'을 가리킨다. '갑녀'가 '을녀'에게 '글란 싱각 마오'라고 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의 유사한 체험을 근거로 제시하여 '을녀'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를 그토 얼굴이 ~ 네와 고티 세시논가’ 등 임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 ㉠(‘님’)에 대한 ㉡(‘을녀’)의 정서적 친밀감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이내 수설 드러 보오’라고 하며 ㉡(‘을녀’)은 ㉠(‘갑녀’)에게 사설, 곧 자신이 겪은 서러운 일을 토로하고 있다.

③ ‘턴상 빅옥경을 었디후야 니별후고 / 히 다 더 저든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라는 표현을 통해 ㉠(‘갑녀’)은 ㉡(‘을녀’)에게 사연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반기시는 노비치 네와 었디 다루신고’에서 ㉠(‘님’)이 ㉡(‘을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보기>는 연군의 정을 노래한 평시조로, 임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보기>의 ‘별’ ‘달’은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은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화자의 소극적인 애정관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되짚어보기 정철, 「내 무음 버혀 내여」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사대부가 추구하는 가치나 태도를 보여주는 시조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에 대한 충성심을 ‘별’과 ‘달’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갈래	평시조
성격	연군가(戀君歌)
제재	별, 달
주제	연군의 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 개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별’, ‘달’)으로 형상화함. 임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별’, ‘달’)에 빗대어 표현함.

- 14** <보기>는 임진왜란 이후 작가가 당면한 현실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전란 후 고향에 돌아가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실생활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되짚어보기 박인로, 「누항사」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3년(1611)에 박인로가 지은 가사이다. 경기도 용진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이덕형이 찾아와 사는 형편을 묻자 작가가 이에 화답하는 뜻으로 지은 가사로,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갈래	가사
성격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
제재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생활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에 은일(隱逸)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드러남.

- 15** (나)는 ‘세자’와 ‘대군’이 고국으로 떠나기 전에 ‘호왕’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 ‘세자’와 ‘대군’이 풀려난 이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대군’의 됃됨이와 이러한 ‘대군’에게 ‘호왕’이 느끼는 감정 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세자’와 ‘대군’의 영웅적 면모를 찾아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호왕’이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을 위협하면서 이들은 갈등 관계에 놓인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한 ‘호왕’이 ‘임경업’의 원을 들어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된다.

③ ‘승지’가 ‘김자점’이 두려워 임금의 하교를 전하지 못할 만큼, ‘김자점’의 위세가 온 조정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상’은 관을 벗고 청죄하는 ‘임경업’을 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대한 반가움과 ‘임경업’의 모습에 대한 의아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⑤ ‘김자점’의 명령에 따라 ‘임경업’이 죽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 16** 전옥 관원의 말과 사건의 흐름을 통해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아 전옥에 가두려는 ‘김자점’의 흉계를 확인할 수 있다.

- 17** [A]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불의에 대해 호통을 치는 부분으로, 두 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18**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忠臣)이라.”라고 말하며, 그 충절을 높이 평가한다.

- 19** 이 글은 병자호란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병자호란의 패배를 허구적 장치를 통해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작품으로, ‘호왕’을 대하는 ‘임경업’의 태도에서 호국에 대한 분노와 민족적 우월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왕’이 ‘임경업’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는 장면에서도 호국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호국의 진취적 기상과 외교 정책에 대한 당대의 호의적인 태도가 반영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임경업’과 ‘김자점’이라는 실제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② 집권층인 ‘김자점’의 부정한 모습을 통해 집권층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것은 사실이나,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구해 낸 것 등은 허구이다. 이는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전쟁 패배에 대한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 정신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⑤ ‘임경업’은 영웅적인 인물로, 당시 혼란스럽던 나라를 구해 줄 영웅의 출현을 바랐던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다.

(3) 개화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작품1 산돼지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380~389쪽

- 01 ⑤ 02 ⑤ 03 산돼지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③ 12 ④ 13 ④
14 동학 농민 운동 15 ① 16 ② 17 ③ 18 ⑤ 19 ④

01 ‘앞부분 줄거리’에서 ‘최 주사댁’이 ‘최원봉’과 ‘정숙’의 만남을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일로 인해 ‘최 주사댁’이 ‘최원봉’에게 미안함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가)에서 ‘최 주사댁’이 ‘최원봉’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최원봉’이 신경 쇠약증에 걸려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02 ‘산돼지’는 저돌적이고 괴팍한 인물을 의미하고, ‘집돼지’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인물한다. 그리고 ‘들돼지’는 ‘산돼지’와 ‘집돼지’의 과도기적 상태이다. (가)에서 ‘최원봉’은 ‘산돼지’가 ‘집돼지’로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표현하고, 그 반대는 ‘퇴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03 (가)에서 ‘최원봉’은 “홍,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더 지를라고요.”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원봉’이 자신을 ‘산돼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은 신경 쇠약증이 걸린 ‘최원봉’을 걱정하는 ‘최 주사댁’의 마음이 담긴 말이다. ‘최 주사댁’은 ‘최원봉’의 말을 병 때문에 예민해서 내뱉는 한탄 정도로 받아들이며 ‘최원봉’의 상태와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되묻고 있다.

05 ‘최원봉’은 자신과 ‘최영순’이 친남매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고, ‘최 주사댁’은 이를 눈치채고 당황한 상태이다. 또한 ‘얼굴을 가리며’라는 지시문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당황한 ‘최 주사댁’이 손으로 표정을 숨기는 것은 적절한 장면이다.

1 오답 풀이 ① ‘보석’과 ‘진주’는 ‘최원봉’이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활용한 비유적 표현일 뿐이므로, 공연에서 드러낼 필요가 없다.

② ‘최원봉’이 이야기를 끝마칠 때까지 ‘최 주사댁’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최원봉’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③ ‘최원봉’은 ‘최 주사댁’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드러운 눈빛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최 주사댁’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 것은 ‘최원봉’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척하기 위한 행동이다. ‘최 주사댁’은 ‘최원봉’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 주사댁’이 ‘최원봉’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06 ‘최원봉’은 ‘보석’과 ‘돼지’ 이야기에 빗대어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최 주사댁’으로부터 자신과 ‘최영순’의 관계를 확인받고(ㄷ),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한 행동이다. 또한 계속해서 ‘최원봉’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최 주사댁’에 대한 반감을 표하려는 의도도 있다(ㄴ).

07 (나)에서 ‘보석’과 ‘진주’는 ‘최영순’을 의미하고, ‘돼지’는 ‘차혁’을 의미한다. ‘최원봉’은 ‘돼지’가 ‘아까운 진주’ 같은 보석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원봉’은 ‘최영순’을 좋아하는 ‘차혁’을 미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보석’과 ‘돼지’ 이야기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대상
‘보석’, ‘진주’	‘최영순’
‘집돼지’	‘차혁’

08 (다)에서 ‘최원봉’은 ‘최 주사댁’에게 비유적인 옛날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놈(㉠)’은 ‘최원봉’의 친아버지, ‘양반(㉡)’은 ‘최 주사’와 ‘최 주사댁’, ‘삼살개 한 마리(㉢)’는 ‘최원봉’, ‘보물과 음식(㉣)’은 ‘최영순’, ‘도적놈(㉤)’은 ‘차혁’을 의미한다.

되짚어보기 ‘최원봉’의 옛날이야기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대상
‘상놈’	‘최원봉’의 친아버지
‘양반’	‘최 주사’와 ‘최 주사댁’
‘삼살개’	‘최원봉’
‘보물과 음식’, ‘별별 보화와 산해진미’	‘최영순’
‘도적놈’	‘차혁’

09 (라)에서 ‘최원봉’과 ‘최 주사댁’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는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을 의미하는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어울린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면서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1 오답 풀이 ① 괄목상대(刮目相對)는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는 ‘차혁’의 학식이나 재주 등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이르는 말이다. 비록 ‘최원봉’이 예민해져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나,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거나 횡설수설하지는 않는다.

③ 감언이설(甘言利說)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이른다. ‘최 주사댁’은 ‘최원봉’에게 출생의 진실을 숨기려 하나, 감언이설로 달래고 있지는 않다.

④ 금시초문(今始初聞)은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을 이르는 말이다. (라)에서 ‘최 주사댁’은 ‘최원봉’의 ‘돼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진저리를 치고 있다.

- 10 ‘집 안’은 ‘집돼지’가 머무르는 곳으로, 현실을 의미한다. ‘최원봉’은 ‘산돼지’로서 산에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현재는 ‘집 안’에 갇혀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

되짚어보기

‘집 안’의 의미

‘집 안’

- ‘집돼지’가 사는 곳
- ‘산돼지’가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곳
- 현실

- 11 누워만 있던 ‘최원봉’이 상반신을 들어 주사댁 얼굴을 쳐다본 까닭은 대화의 분위기를 전환하여 ‘최 주사댁’에게 진실을 듣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최원봉’이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암시하는 듯한 ‘최원봉’의 이야기에 ‘최 주사댁’은 놀라지만, 이러한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고개를 번쩍 들어 반문하고 있다.

② ‘최 주사댁’이 시치미를 뚝 떼며 화젯거리를 돌리려 하자, ‘최원봉’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최 주사댁’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누고 있다.

④ ‘최 주사댁’은 자신이 숨기려 한 진실에 대해 ‘최원봉’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당황하여 떨린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⑤ ‘차혁’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바로 ‘최영순’부터 찾는다. 이로 보아, 밖에 마당에서 서성이는 ‘차혁’의 행동에서 ‘최영순’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

- 12 ‘혁이’, ‘집돼지’, ‘차 선생님’, ‘그 자식’은 모두 ‘차혁’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원봉’이 자신이 누워 있는 방을 가리켜 ‘미친놈 누워 있는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미친놈’은 ‘최원봉’ 자신을 의미한다.

- 13 <보기>는 표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표현주의에서는 개인의 깊은 정신 상태와 인물의 내면적 체험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 글에서는 몽환 장면을 설정하여 현실의 ‘최원봉’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에서 표현주의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 14 (바)에 제시된 팬티마임 장면은 동학 농민 운동의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사)의 ‘원봉이네’ 대사 중 ‘동학 역적놈을 남편으로 둔 죄’라는 표현을 통해 이 글에 반영된 역사적 사건이 ‘동학 농민 운동’임을 알 수 있다.

- 15 (바)~(사)는 ‘최원봉’의 꿈속 장면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바)의 ‘팬티마임’은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각적·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에서는 ‘최원봉’의 친어머니인 ‘원봉이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최원봉’의 친어머니가 ‘최 주사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몽환 장면의 기능

몽환 장면

- 동학당 전군 행렬의 팬티마임이 지나감.
-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던 남편 때문에 ‘원봉이네’가 ‘병정’에게 끌려가면서, 뱃속 아기(‘최원봉’)를 살려 달라고 애원함.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함.
- 꿈속 환상을 통해 ‘최원봉’의 출생의 비밀을 보여 줌.

- 16 ‘원봉이네’는 추운 겨울날 만삭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다. ‘비틀비틀하며’라는 지시문뿐만 아니라, “만삭된 이 무거운 몸을 해 가지고 삼십 리나 걸어왔으니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기로 당할 수가 있습니까?” 등의 대사를 통해 ‘원봉이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병정’은 ‘원봉이네’가 만삭의 몸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빨리 걸으라며 타박하고 있다.

③ ‘원봉이네’는 남편의 일로 자신이 참형을 당해도 원통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④ ‘병정’은 ‘원봉이네’의 애원에 이랑곳하지 않고 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병정’은 ‘원봉이네’ 아기의 생사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원봉이네’가 계속 뱃속 아기의 이야기를 꺼내자, 귀찮아하고 있을 뿐이다.

- 17 ‘뒷부분 줄거리’에 제시된 ‘병이 나은 최원봉은’이라는 서술을 통해 ‘최원봉’이 신경 쇠약증에서 완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원봉’이 ‘정숙’과 함께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에서 그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최원봉’의 친아버지와 ‘최 주사’는 동학당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다.

② 결국 ‘최영순’은 ‘차혁’과 약혼을 한다.

④ ‘원봉이네’는 ‘병정’에게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며, 아기 하나만을 위해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⑤ ‘최 주사댁’은 처음에는 남편의 유언대로 ‘최원봉’과 ‘최영순’을 부부로 맺어 주려고 했지만, 가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음을 바꾼다.

- 18 ‘병정’은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다. ‘병정’의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관객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원봉이네’의 입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게 만든다. 이는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되짚어보기

‘병정’의 태도에 담긴 작가의 의도

‘병정’

‘원봉이네’의 애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인 면모를 보임.

- 동학 농민 운동의 실패에 따른 동학군과 그 가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강조함.
- 관객의 연민과 공포를 유발하고, 극 중 인물과 사건에 더욱 몰입하게 함.

- 19 <보기>를 통해 ‘최원봉’의 생부인 ‘박정식’은 동학당으로서 실천적이고 강한 역사 의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최원봉’의 친아버지가 산돼지 탈을 ‘최원봉’에게 씌우려 하는 장면은 사회 개혁의 숙명을 ‘최원봉’에게 이어주기 위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원봉’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못난이만 뒤끓는 집 안’에 몰아넣어진 ‘산돼지’로 인식하며, 현실적 제약에 대한 불만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즉, 이 글은 사회 개혁이라는 숙명과 현실의 무기력함 사이에서 겪는 인물의 갈등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 청년이 겪는 좌절과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되짚어보기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

‘최원봉’의 생부(‘박정식’)

동학당으로서 실천적이고 강한 역사 의식을 지님.



‘최원봉’

사회 개혁의 숙명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에 불만감과 무기력감을 느낌.

‘최원봉’의 내적 갈등

작품 2 태평천하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396~405쪽

- 01 ④ 02 ① 03 ② 04 ④ 05 경찰서장 06 ④
07 ③ 08 ⑤ 09 ③ 10 지체를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부랑당 패 16 ① 17 ③ 18 ⑤ 19 ③ 20 ⑤

- 01 이 글은 부정적 인물인 ‘윤 직원 영감’을 전면에 내세워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모순을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이 글은 ‘윤 직원 영감’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말 대가리’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들을 희화화하고 있다.
③ 고사를 인용한 소재목으로 ‘윤 직원 영감’ 일가에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⑤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라는 인물의 말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02 ‘윤 직원 영감’은 돈을 들여 양반이 되었고, 족보에 도급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제는 손자들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윤 직원 영감’이 가문의 번영에 관심이 많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윤 직원 영감’에게는 과거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식민 체제라는 조국의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하며, 일본인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④ ‘윤 직원 영감’의 착한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윤 직원 영감’은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인물로, 허황된 꿈을 좇고 있지 않다.

- 03 이 글의 서술자는 경어체 문장을 사용하여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특정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윤 직원 영감’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되짚어보기

판소리적 문체의 사용과 그 효과

‘-겠지요’, ‘-습니다’ 등의 경어체 문장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함.

- 04 ‘윤 직원 영감’이 ‘윤중수’에게 한 말 중,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 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를 통해 ‘윤중학’의 씹셈이가 ‘윤중수’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05 ‘윤 직원 영감’이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찌들어 나머던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헌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답 말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윤중학’이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윤 직원 영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손자들에 대한 ‘윤 직원 영감’의 기대

‘윤중수’	‘윤중학’
현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문을 위해 군수가 되기를 바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삼사 년 노력하여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람.



표면적으로는 손자들의 장래를 위한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집안의 지위와 명성을 담보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음.

06 [A]는 ‘윤 직원 영감’이 ‘윤종수’에게 훈계하는 부분이다. ‘윤 직원 영감’은 ‘윤종학’의 재주와 착실한 태도를 칭찬하며, 그에 못 미치는 ‘윤종수’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07 ‘중수’, ‘경손 애비’, ‘형 놈’, ‘너’는 모두 ‘윤 직원 영감’의 큰손자인 ‘윤종수’를 의미한다. 반면 ‘그놈’은 둘째 손자인 ‘윤종학’을 의미한다.

08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은 표면적으로는 손자들의 장래를 위한 말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집안의 지위와 명성을 담보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오답풀이] ㉔ 손자들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면, ‘윤 직원 영감’이 나랏일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집안의 이익에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09 ‘윤 직원 영감’이 ‘윤 주사’에게 “……멋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라며 빈정거리는 것으로 보아, ‘윤 직원 영감’은 ‘윤 주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라는 ‘윤 직원 영감’의 말과,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림이다.’라는 서술자의 말을 통해 ‘윤 주사’의 방문이 예상 밖의 일임을 알 수 있다.

㉒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라는 ‘윤 주사’의 말에서 ‘윤 주사’에게도 전보 내용이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 수 있다.

㉓ ‘윤 주사’가 아들 ‘중수’한테 한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는 등의 모습에서 ‘윤 주사’가 웃어른으로서 가족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 이구요.’라는 서술자의 말을 통해 ‘윤 직원 영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 ‘윤종학’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서술자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윤 직원 영감’의 점잖지 못한 행동을 비꼬고 있다.

되짚어보기 편집자적 논평과 그 효과

편집자적 논평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윤 직원 영감’의 경망스런 모습을 비꼬.

11 ㉕은 ‘윤 주사’가 ‘윤 직원 영감’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서술한 부분으로, ‘한자리 꾸부리고서’라는 표현에서 서술자의 냉소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2 ‘전보’에는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이런 전보의 내용에 놀라며 ‘윤종학’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낄 뿐,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

[오답풀이] ㉑ ‘윤종학’이 사상 문제로 경시청에 잡혀갔으므로, ‘윤 직원 영감’의 집안에 불이익이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㉒ ‘전보’를 통해 ‘윤종학’의 행적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㉓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은 친일 행위를 하며 일제 강점기를 편안하게 살아왔으나, ‘윤종학’의 피검으로 인해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는 내용을 통해 ‘윤종학’이 검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㉑ 감탄고토(甘香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㉒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㉓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㉔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14 (바)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시황’의 자식인 ‘호해(胡亥)’가 진나라를 망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할 인물은 그의 손자인 ‘윤종학’이다. 따라서 ‘윤 직원 영감’은 ‘진시황’에 해당하고 ‘윤종학’은 ‘호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소재물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진시황’	‘호해’
‘윤 직원 영감’	‘윤종학’



고사를 활용하여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들, 특히 ‘윤종학’임을 암시함.

15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윤종학’을 가리켜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라고 말하며 격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자를 ‘부랑당 패’와 같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사회주의’에 대한 ‘윤 직원 영감’의 인식

- 손자인 ‘윤중학’의 안위보다 ‘윤중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음.
- 사회주의자들을 ‘세상 망쳐 놓 부랑당 패’라고 함.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회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

16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앙을 여겨서가 아닙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이 걱정하는 것은 ‘윤중학’의 안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윤중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다.

17 ‘윤 직원 영감’은 ‘윤중학’이 경찰서장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 그런데 믿었던 ‘윤중학’이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을 느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윤 직원 영감’의 상황에는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의미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누워서 침 뱉기’는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 혹은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말이다.

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18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윤중학’에게 분노를 느껴, ‘윤중학’에게 나누어 주려 했던 재산을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경찰서에 가져다줘 버릴 거라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따라서 돈을 들고 경찰서로 가 ‘윤중학’의 석방을 호소하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순사’, ‘우리 조선 농 보호’ 등을 통해 이 글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윤 직원 영감’은 주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울분을 토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장면에서 ‘윤 직원 영감’ 역을 맡은 배우는 울분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윤 직원 영감’은 과거에 ‘화적패’와 ‘부랑당 같은 수령’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화적패’가 있었던 과거의 장면을 활용하여,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을 강조해 줄 수 있다.

④ 분노하는 ‘윤 직원 영감’의 모습에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다.

19 ‘윤 직원 영감’이 말하는 ‘태평천하’는 실제로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자행하던 비참한 시대 현실이다. 따라서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풍자하는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제목 ‘태평천하’의 의미

‘태평천하’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일반 민중에게는 일제 강점기가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기였음.



‘윤 직원 영감’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반어적으로 풍자함. →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풍자

20 ㉠의 ‘장수의 죽음’은 ‘윤 직원 영감’의 몰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은 ‘윤 직원 영감’의 몰락과 함께 ‘윤 직원 영감’ 일가가 붕괴될 것임을 암시한다.

작품3 쉽게 씌어진 시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410~411쪽

01 ③ 02 밤비 03 ③

01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 성찰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육첩방’, ‘남의 나라’인 일본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침전’이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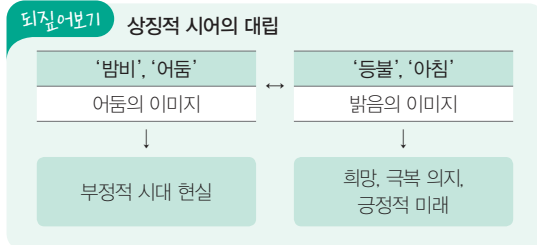
되짚어보기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

현실의 ‘나’	이상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자아 • 암울한 시대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적 자아 •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님.
‘최초의 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함.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짐.

02 이 시에서 ‘밤비’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소재로 화자의 외로움, 무기력함 등의 정서를 강조하며 자기 성찰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03 ‘등불(燈)’은 밝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로, 희망,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 등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를 의미하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원 평가 문제

본문 418~421쪽

01 ④ 02 구정물을 얻어먹고 사는 존재로,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특성이 있다. 03 ③ 04 ② 05 ⑤ 06 ② 07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이 내부의 자손(‘윤종학’)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08 ① 09 ② 10 ⑤ 11 ⑤ 12 ②

01 (라)는 ‘최원봉’의 꿈속 장면이다. 조명이 밝아지면서 병실이 아니라 겨울의 별판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최원봉’의 꿈속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최원봉’은 저돌적이며 과묵한 자기 자신을 ‘산돼지’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최원봉’은 ‘보석’과 ‘돼지’에 빗대어, 자신에게서 ‘최영순’을 빼앗으려는 ‘차혁’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최원봉’은 ‘최 주사댁’에게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간입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

⑤ 팬터마임을 통해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가)에서 ‘최원봉’은 ‘집돼지’와 ‘차혁’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원봉’이 “집돼지가 되어서 구정물 얻어먹기 시작하면 영영 집돼지로밖에 못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집돼지’에 대한 ‘최원봉’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구정물’은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더러워진 물이라도 얻어먹으려 집에서 사는 ‘집돼지’에 대한 ‘최원봉’의 냉소적 태도가 담긴 표현이다.

03 ‘최원봉’은 ‘최영순’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순’을 빼앗아 가려는 ‘차혁’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석’과 ‘돼지’ 이야기에서 ‘보석’과 ‘진주’는 ‘최영순’을 의미하고, (집)돼지는 ‘차혁’을 의미한다.

04 ‘최 주사댁’은 ‘최원봉’의 질문에 당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 ‘대경失色(大驚失色)’이 어울린다.

오답풀이 ① 언어도단(言語道斷)은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오비이락(鳥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호연지기(浩然之氣)는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를 의미하는 말이다.

⑤ 목불인견(目不忍見)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05 (가)~(마)는 가족사 소설로, ‘윤 직원 영감’ 일가의 가족사를 통해 한말과 일제 강점기 한국 사회의 변천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윤 직원 영감’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 집안의 몰락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비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06 ‘윤 직원 영감’은 집안 식구들에게 마구 욕박지르고, 손자들에게 진로를 강요한다. 또한 ‘윤 직원 영감’이 화를 터뜨리자 식구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직 가부장적 질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 사회주의 운동을 한 ‘윤종학’이 경시청에 잡혀간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윤종학’과 같은 조선인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은 그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탄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윤 직원 영감’이 일제 강점기를 ‘조선 농 보호’하여 주는 ‘태평천하’로 칭송하고, ‘윤종학’에게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농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윤 직원 영감’처럼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 지주 계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윤 직원 영감’의 말 중 “거리거리마다 순사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히어서”를 통해 일본인 순사와 군사들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의 소재목인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는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것으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외부의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라는 뜻이다. 이는 ‘윤 직원 영감’의 손자인 ‘윤종학’이 집안을 망하게 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08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에서 서술자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윤 직원 영감’의 이기적인 모습을 냉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09 이 시의 8연에서는 1연을 변형하여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배경('밤비')과 공간적 배경('육첩방') 등의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서 '등불'은 희망과 극복 의지,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를 의미한다. 반면 '밤비'와 '어둠'은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화자는 등불을 밝힘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고 긍정적 미래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이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암담한 현실에 회의감을 느끼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다가,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듯 이 시는 화자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밤비, 어둠'과 '등불, 아침'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각 부정적인 시대 현실과 긍정적인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는 독백체의 어조로 자신의 성찰 과정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10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화해함으로써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11 ㉠에서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에서는 내적 갈등을 끝내고 희망적인 미래를 기다리며 극복 의지를 다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2 이 시의 6연, 9연, 10연에서 '나'라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 <보기>의 4연에서도 표면에 드러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와 같이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는 종결 어미 '-(리)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의 5연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를 통해 '동무'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이 나타난다.

되짚어보기 **이육사, 「광야」**

이 작품은 광야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며,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제재	광야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종결 어미 '-(리)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함. • 각 연을 3행씩 배열하고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획득함.

(4) 광복 이후의 문학

작품1 광장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424~433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① 07 '명준'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08 ② 09 ② 10 ⑤ 11 ⑤ 12 ① 13 ④ 14 푸른 광장 15 ② 16 ① 17 ⑤ 18 ② 19 ⑤

01 작품 안의 서술자가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이다.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 있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에서는 '있다', '말한다' 등의 현재형 시제로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④ '보여 주기'는 대화와 인물의 행동 위주의 장면 제시를 일컫는다. (가)는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에 대한 서술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는 작중 상황과 거리를 두어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북측 설득자는 중립국 역시 자본주의 나라로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곳이라며,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실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명준'을 설득하고 있다.

03 '명준'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서거가 아니라 길게 이야기하거나 설득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이를 통해 '명준'을 화유하기 위한 것이다.

③ 자신들이 원하던 대답이 아닌, 뜻밖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④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어 '명준'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으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⑤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권리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04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한 것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북측과 남측이 어떤 식으로 설득하든지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중립국은 '명준'이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선택한 곳이다. 따라서 중립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② 남측과 북측의 설득자 모두 '명준'을 자신의 조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명준'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

③ '명준'은 양측이 제시한 조건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⑤ '명준'은 심사장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일관성 있게 펼치고 있다.

중립국

- 이념(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없는 공간
- 인간의 진정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아닌, 단지 이념이 배제된 공간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데에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담겨 있음.

- 05 남측의 설득자는 대한민국이 비록 과도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유가 있다며 ‘명준’을 설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외국에서 느끼는 조국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외국 생활의 불편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③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하며,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자유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명준’을 회유하는 궁극적인 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⑤ 중립국이 막연한 선택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망명한 사람들이 중립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06 북측 장교는 자신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명준’이 북한행을 끝내 거부하자, ‘명준’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명준’을 노려본 것이다.

- 07 앞부분의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명준’을 설득하던 북측 장교는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기분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좋아.”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명준’에 대한 설득을 포기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8 ‘명준’에게 출신이 어딘지를 묻고, 대답이 없자 “서울이군.”이라며 남측 설득자가 스스로 대답하고 있다. 이는 ‘명준’이 남한 출신임을 근거로 ‘명준’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09 이 글은 분단 현실에 의해 좌절하는 한 지식인 청년 ‘명준’의 삶에 초점을 두어, 남북한의 이념 대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바)에서는 ‘명준’이 과거의 남한에서의 삶을 사색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나.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여러 인물들의 시각에서 관찰하여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ㄹ. 이 글에는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주인공인 ‘명준’의 심리가 변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준’은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 10 남측 설득자는 ‘명준’에게 인상이 마음에 들고 동생처럼 여겨졌으며 호감을 표현하고, 남한을 선택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조력도 약속하는 등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명준’은 중립국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뿐,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② ‘명준’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명준’의 어리석음을 꾸짖거나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이념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명준’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1 [A]에는 ‘~ 것이다’, ‘~겠지’로 문장이 종결되어 있다. 이는 미래 시제로, 현재의 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명준’이 남측 설득자를 만나는 상황이 실재가 아니라 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배경지식+ 미래 시제의 쓰임과 의미

시제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현재·미래가 있다. 그중에서 미래 시제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행위, 현상, 상태 등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단순 시간 외에 약속, 추측, 의지, 희망, 명령, 권유, 의무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12 중립국행의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나왔을 때 ‘명준’은 허탈하면서도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웃음을 터뜨리는 ‘명준’의 행동은 실제의 마음과 괴리가 있다. 이는 중립국을 선택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으로 볼 수 있다.

- 13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라는 구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준’이 설레는 표정으로 ‘은혜’가 있는 하숙으로 돌아가는 장면보다는 쓸쓸히 걸어가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사)의 첫 구절에서 책을 모으고, 미래를 구경하려 다녔던 ‘명준’의 대학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명준’의 삶의 내력(아버지 때문에 남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결국 월북한 내력)을 고려할 때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라는 구절은 ‘명준’이 북한으로 밀항하던 때를 회상하며 떠올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막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라는 구절에서 ‘명준’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이라는 구절에서 ‘명준’이 바닷새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정과 바닷새에게 하려고 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 14 '푸른 광장'은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가리킨다. 즉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푸른 광장'의 의미

푸른 광장 '명준'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시달리다 벗어난 곳이자, 아내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임.

↓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임.

- 15 '부채'는 '명준'의 삶을 나타낸 것으로, '명준'의 삶은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부채꼴 넓은 데(㉠)에서 점차 좁아져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북자리(㉡)의 상태가 되었다.

되짚어보기

'부채'에 담긴 '명준'의 삶

부채 진정한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던 '명준'의 삶의 모습 전체를 나타냄.

↓
• '명준'의 삶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명준'은 현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에 있음.

- 16 '두 마리 새'에서 '명준'은 점차 죽은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딸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를 통해 '두 마리 새'가 '명준'이 사랑한 '은혜'와 죽은 딸의 표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준'은 이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보며 어떤 결심을 한 후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이를 통해 '두 마리 새'는 '명준'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명준'이 '두 마리 새'에서 '은혜'와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 과거의 일을 단편적으로 떠올리지만, 미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 '명준'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애절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두 마리 새'에 현실 도피로 인한 죄의식과 열등감이 투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17 이 글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한 지식인 '명준'의 모습을 통해, 분단 현실에서 남북한 사회가 지닌 이념적 허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남북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다.

▶오답풀이 ① '명준'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는 하나,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주인공의 관념적, 철학적, 추상적인 사색과 연결되어 인물의 내적 갈등과 고민을 잘 보여 준다.

② 이 글의 결말에서 '명준'이 바다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명준'이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고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동이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인간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③ '명준'과 사회 체제와의 갈등과 '명준'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인간의 이타적인 속성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비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 가족의 삶보다는 '명준'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18 '명준'의 죽음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허상에 대한 반발,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은혜'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성취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무관심은 '명준'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19 이 글에서 ㉡의 '마카오'는 '명준'이 지향한 '푸른 광장'과는 무관한 공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밤중에, 그것도 자는 사람을 깨워서 알려야 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누군가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은 배 밖의 공간인 '바다'에 빠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사건의 맥락상 '석방자 한 사람'은 '명준'임을 알 수 있다.

③ 한 인간의 행방불명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타고로호의 행로와 거대한 몸체는 '명준'의 죽음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④ '명준'이 투신하자, 흰 바닷새들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흰 바닷새가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로, '명준'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명준'의 투신의 의미와 그 한계

'명준'의 투신 •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고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벗어나고자 함.
• 이념 선택의 한계와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
한계 지식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으로, 현실 도피적인 행동임.

작품2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440~441쪽

01 ② 02 ④ 03 ①

01 이 시는 ‘경청한다’, ‘날아간다’, ‘앉는다’ 등의 현재 시제로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19행의 ‘앉는다’를 20행에서는 ‘주저앉는다’로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화자의 현실에 대한 좌절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이 시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 영화관에서 애국가를 경청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애국가가 끝나면서 자리에 앉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

④ 이 시에는 ‘끼룩’, ‘낄낄’, ‘깰죽’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처럼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의 11~16행에는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특히 6~7행, 12~13행에서는 ‘끼룩’, ‘낄낄’, ‘깰죽’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15~16행에서는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되짚어보기 화자의 심리 변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지님.
↓
‘주저앉는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낌.

03 ㉠은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 가사이다. 그러나 ㉠의 내용과는 달리 화자가 처한 상황은 이와 반대되는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의미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 화자의 자유를 지 못한 처지와 대조된다.

③ 열 맞추어 줄 지어 서 있는 모습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당시 사회적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다.

④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자 흰 새 떼들이 비상하는 곳으로, 자유와 이상의 세계를 가리킨다.

⑤ 자유가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구속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군사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갈등과 억압을 겪어야 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함.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자유롭고 이상적인 사회, 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함.

작품 3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본문 448~453쪽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 01** ③ **02** ② **03**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⑤
12 ⑤

01 작가는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할 때 만났던 노인 목수와와의 일화를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하는 수필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02 ‘차치리’는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인 ‘주객전도(主客顛倒)’가, 제시된 상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조변석개(朝變夕改)는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구밀복검(口蜜腹劍)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03 (나)의 마지막 문장인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를 통해 노인 목수가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 즉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04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려 온 작가와 달리, 노인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에 따라 집을 그렸다. 이를 통해 작가는 노인 목수의 그림이 일하는 사람의 그림, 즉 실제 생활에 토대를 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작가는 지붕부터 그려 온 자신의 무심함, 즉 실재를 몰랐던 자신의 무심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을 느낀다. ‘서가’는 책을 꽂아두는 선반으로, 실재가 아닌 지식이나 이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은 실체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지식 체계가 부정당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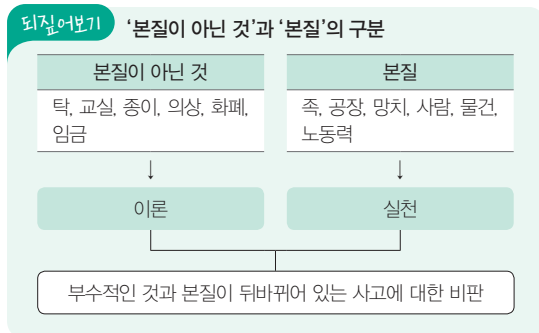
05 (다)에서 작가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

을 확신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위로로 파악하고, 이에 따뜻함을 느꼈다는 독자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글의 작가는 ‘탁’과 ‘발’에 비유하여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사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이 뒤바뀐 사고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인 독자의 반응과, 본질이 아닌 ‘탁’보다 본질인 ‘발’을 상대할 것을 다짐한 독자의 반응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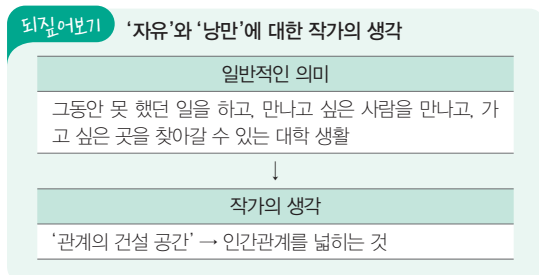
③, ⑤ 대학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다. 한편 사회는 살아 있는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실제적인 경험과 관련 있다. 따라서 대학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파악한 독자의 반응과 사회 현장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파악한 독자의 반응은 적절하다.

06 (다)에서 작가는 본질이 아닌 것과 본질인 것을 함께 나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실, 종이, 화폐, 임금’은 본질이 아닌 것에, ‘사람’은 본질인 것에 해당한다.



07 작가는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로 보고 있으며, 이를 넓히는 것이 자유와 낭만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있다.

08 ‘관계의 건설 공간’은 새 출발을 앞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낭만, 즉 다양한 사람들과 맺는 인간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와 관련이 없는 표현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다. ‘종속의 땅’의 반대의 의미는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09 이 글은 작가가 직접 겪은 감옥에서의 경험과, ‘차치리’ 고사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실천하는 삶의 소중함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사색을 차분하고 설득적인 어조로 이야기하여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닌, 일화를 들려주며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대조되는 대상을 나열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타인의 생각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하고 있지 않다.

④, ⑤ 문답식 구성과 대상의 속성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삶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는 글로, 추상적일 수 있는 내용을 유추를 통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

10 이 글에서 작가는 새 출발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구체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1 작가는 ‘수능 시험 성적 100점’이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이며, 평균 점수인 중간은 풍요의 자리이자, 수많은 곳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2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합격자’는 허구적인 겉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되짚어보기 진정한 ‘합격자’의 의미

-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사람
- 허구적인 겉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사람

단원 평가 문제

본문 461~466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④
08 ③ 09 ②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비릇
값(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때문에 원통한 것이다. 15 ③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③ 21 ⑤

01 남측 설득자가 옆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때 ‘미군’이 눈을 찡긍하는 것은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명준’이 설득되지 않아서 잘된 결과라는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남북 분단의 이념적 대립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에 따른 선택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소설이므로,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잘 살려야 한다.

② (가)의 마지막 문단 내용인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로 미루어 볼 때, 남측과 북측은 각기 다른 천막에서 포로들의 설득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명준’은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으므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④ ‘명준’이 “중립국.”이라고 반복하여 대답하는 부분은 (가)와 (나)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므로, 그때 ‘명준’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경우 그의 굳은 의지를 보다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다.

02 북측 장교는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참전한 것을 높이 사므로, 일체의 보복 행위가 없을 것을 약속하며 ‘명준’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남측 설득자는 조국은 지금 ‘명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날 거냐며 조국애에 호소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④ (나)에는 북한의 실상을 밝히거나, 이념적 우위를 내세우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남측 설득자는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며, 개인적인 조력을 약속하고 있다.

③, ⑤ (가)에는 자본주의의 실상을 밝힌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3 (가)와 (나)에서 ‘명준’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남북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사회적 상황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남측과 북측에서 ‘명준’의 의사를 묻고 ‘명준’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는 포로 송환 과정에서 양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명준’의 선택이 양극단의 선택지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04 이 글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남북한 사회가 지닌 이념적 허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특히 (나)와 (다)에는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느끼는 관념적, 철학적 사색이 잘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도 분석하여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④ (가), (다), (라)는 현재 사건을, (나)는 과거 사건을 보여 주고 있지만 서로 대비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05 ‘광장’은 공공의 장소, 사회적 삶의 공간을 말한다. 즉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공간으로, 모든 의사 결정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자유가 부재한 북한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밀실’은 내밀한 공간, 개인적 삶의 공간을 말한다. 즉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

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는 자유롭지만 사회적 소통이 결여된 남한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06 ‘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환멸을 느끼고, 아내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인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 인식하며 투신한다. 즉 ‘푸른 광장’은 ‘명준’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시달리다 벗어난 곳이자,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푸른 광장’을 통해 ‘명준’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객관적 반성을 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7 부채의 안착은 삶의 입지가 좁아진 ‘명준’의 상태를 의미한다. 부채 안착으로의 이동은 점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극한 상황에 다다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08 이 글에서는 ‘명준’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큰 새와 꼬마 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명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그 넉넉한 배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었에 싹었던 게 틀림없다.’를 통해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큰 새와 꼬마 새를 몇 번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명준’은 총으로 쏘려고까지 했던 새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죽은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딸로 인식하게 된다.

④, ⑤ (라)의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를 통해 ‘명준’이 배에서 투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준’은 푸른 광장, 즉 바다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중립국’이 아닌, 바다로의 투신을 선택한 것이다.

09 (가)는 1980년대 영화관의 모습을 통해, 군사 독재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그려 낸 시이다. 또한 (나)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정책 때문에 파괴되어 가던 농촌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그려 낸 시이다.

되짚어보기 **신경림, 「농무(農舞)」**

이 작품은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 때문에 파괴되어
가던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한을 노래한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실적, 비판적, 묘사적
제재	농무
주제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부각함.

10 '이 세상'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곳으로, 화면에 나오는 장면과 반대되는 곳이다.

|오답 풀이 ①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 주저앉는다'와 같은 점층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일제히 일어나', '일렬 이열 삼열 횡대'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획일화를 강조했던 당시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하고 있다.

④ '흰 새 떼들'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시적 대상이다. 화자는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자신 역시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⑤ '까룩', '깰깰', '깰깰'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애국과 업수를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삼천리 화려 강산'은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의 가사이다. 하지만 화자가 처한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구는 군사 독재하의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이 시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나오는 애국가를 듣고 있다.

②, ③, ④ 애국가의 영상 속에는 을숙도를 떠나 자기들이 세상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비치고, 화자는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13 ㉠에 등장하는 '걱정이, 서림이'는 화자가 저항하려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 소설 속 인물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민중의 울분과 농민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 준다.

14 15행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는 표현에서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난다.

15 작가는 노인 목수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차치리'의 고사를 제시함으로써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이 글에서 대학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으로, 허구적인 이론을 현실에 맞는 새 이론으로 창조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회의 현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작가는 노인 목수가 실제 집을 짓는 순서에 따라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작가의 깨달음에 의하면,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는 것은 실제와 괴리된 것이며, 실재를 알지 못하고 겉만 건드린다는 의미를 지닌 '수박 겉 핥기'로 표현될 수 있다.

④ 이 글의 예상 독자인 '당신'은 표면적으로 대학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이나, 이면적으로는 새 출발을 앞둔 모든 사람들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에 집착하는 현대인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작가는 진정한 자유와 낭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작가는 노인 목수의 그림을 보고 실제로 기초한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차치리'의 고사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한다. 따라서 작가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의 삶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18 '차치리'는 자신의 발을 본뜬 '탁'이 발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물이다. 따라서 '차치리'가 발이 본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라)에서는 사회 현장에 있던 대학 교정에 있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0 이 글에서 ㉠, ㉡, ㉢은 '본질적인 것'을, ㉣, ㉤은 '본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21 제시된 시는 기혼 직장 여성의 고단한 삶을 통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으로, ⑤의 모성애의 위대함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라는 시구를 통해, '구자명 씨'의 희생을 전제로 가정의 안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이 시의 화자는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졸고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지켜보며, 맞벌이 여성으로서 '구자명 씨'가 겪는 삶을 들려주고 있다.

③ '팬지꽃 아픔'과 '안개꽃 명예'는 여성의 희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떠올릴 수 있다.

되짚어보기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이 작품은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통해 맞벌이 여성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애상적
제재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
주제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자명 씨'라는 개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현대 여성의 고달픔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팬지꽃', '안개꽃' 등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5) 한국 문학의 발전상

작품1 구부정 소나무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468~469쪽

01 ② 02 구부정 소나무 03 ①

- 01 이 시는 러시아에서 거주했던 시인이 그곳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보며 느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그려 낸 것이다. 따라서 자연물(‘구부정 소나무’)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③ 명사로 끝맺은 시행은 마지막 행의 ‘구부정 소나무의 내 나라’뿐이다. 대체적으로 ‘-다’의 문장형으로 끝맺고 있다.
 ④ 숲의 먼 끝에 외따로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이 이 시의 주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되짚어보기 화자의 현재 상황

화자가 있는 곳	로씨야 땅(러시아)
화자가 보고 있는 것	구부정 소나무

↓
 화자는 러시아 땅에서 보기 드문 구부정 소나무를 바라보며, 조국과 고향을 떠올리고 있음.

- 02 ‘구부정 소나무’는 화자가 떠난 고국과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하는 소재이다. 또한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숲의 다른 나무들과 어울리지 못한 모습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 03 ①의 ‘가슴이 소리 없이 외친다’에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 방법인 ‘역설법’이 쓰였다. ①은 ‘반어법’을 활용하여 환경 오염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정반대로 표현하였다.

되짚어보기 시구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

‘가슴이 소리 없이 외친다’	떠난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아프다는 의미임. → 역설법
‘멀리서 아끼는 사랑’	조국을 떠난 자가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길 떠난 아들’	화자 자신. 망명하여 러시아로 온 시인 자신을 의미함.
‘구부정 소나무의 내 나라’	떠난 조국

↓
 떠난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슬픔의 정서가 나타남.

작품2 소년을 위로해 줘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474~481쪽

01 ② 02 ⑤ 03 ③, ⑤ 04 ④ 05 ⑤ 06 이건, 내 이야기잖아! 07 ③ 08 엽서 09 ③ 10 ④ 11 ③ 12 내가 알아맞혀 볼게. 13 ③ 14 ⑤

- 01 이 글은 ‘-나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생동감이 느껴진다.
- 02 ‘연우’는 ‘독고태수’의 첫인상이 영 마땅찮았지만 입술 위의 작은 흉터를 보고 ‘독고태수’가 순진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가)에서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독고태수’를 상대하며, ‘독고태수’가 원하는 노래를 듣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 ‘독고태수’가 보이는 호의를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3 ‘앞부분 줄거리’에서 ‘독고태수’는 처음 보는 ‘연우’에게 친밀하게 말을 건네는데, 이는 ‘독고태수’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 좋게 잘 어울리는 능력인, ‘친화력’이 좋은 인물임을 보여 준다. 또한 (가)에서 ‘독고태수’가 ‘연우’에게 음악을 권하며 스스로 없이 주머니에서 엠피시리를 꺼내는데, 이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성격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입술 위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해서 성격이 거칠고 반항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연우’는 이 흉터를 보고 ‘독고태수’가 순진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② ‘독고태수’는 ‘연우’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연우’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계산적이거나 치밀한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되짚어보기 ‘독고태수’의 성격

- 처음 보는 ‘연우’에게 친밀하게 먼저 말을 걸.
- ‘연우’가 ‘미스터 심드렁’에 대해 묻자마자 엠피시리(MP3)를 꺼내 그 노래를 ‘연우’에게 들려주려 함.

- ↓
 • 친화력이 좋은 성격임.
 • 친절하고 적극적인 성격임.

- 04 ‘중간 부분 줄거리’에서 ‘채영’이 ‘연우’와 같은 학교의 동급생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연우’가 ‘독고태수’로부터 헤드폰을 건네받고, 헤드폰을 쓰며 버스 안을 살펴보는 모습을 통해 현재 두 사람이 버스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연우’는 디제이들이 쓰는 것처럼 큰 헤드폰을 쓰려니 어색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 ‘독고태수’는 곡을 못 찾은 모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에서 ‘독고태수’가 노래를 바로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이 글에 삽입된 노래는 ‘독고태수’가 ‘연우’에게 들려준 노래의 가사로, ‘연우’와 ‘독고태수’의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사건의 전개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연우’의 과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비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다.

되짚어보기 삽입된 노래의 역할

-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 등장인물들의 관계 형성과 사건의 전개를 매개함.
- 가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닌 불합리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기존의 통념에 따르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06 ‘연우’가 ㉠과 같이 전율과 가슴 뭉클을 느끼는 이유는 노래의 가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의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인 ‘이건, 내 이야기잖아!’에 제시되어 있다.

- 07 ‘연우’와 ‘채영’이 만난 카페의 골목 쪽 테이블에서 젊은 남녀가 조용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오답풀이 ① ‘연우’는 ‘채영’을 만나기 전에 긴장해서 심호흡을 하며 카페의 문을 열었지만, ‘채영’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연우’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② ‘연우’와 ‘채영’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네 시였다.

④ ‘연우’는 이사하던 날 ‘채영’을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붙여 숨었다. 그리고 ‘채영’은 ‘연우’가 이사하면서 거울을 내릴 때 ‘연우’를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둘 다 서로를 본 적이 있다.

⑤ ‘연우’와 ‘채영’은 ‘채영’이 잘못 보낸 엽서 때문에 만난 것이지, ‘카프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엽서의 한쪽 면에 ‘카프카’의 사진이 있었던 것뿐이다.

- 08 ‘연우’는 자기 집에 잘못 배달된 ‘엽서’를 ‘채영’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채영’을 만나고 있다. 따라서 ‘연우’와 ‘채영’이 만나게 되는 계기이자, 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매개체는 ‘엽서’라고 할 수 있다.

- 09 ‘연우’를 뵈는 바라보는 ‘채영’의 행동(㉢)에서는 ‘채영’의 당찬 성격이 나타나고, ‘연우’가 자신의 엽서를 읽은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에서는 작은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채영’의 털털한 성격이 나타난다.

되짚어보기 ‘채영’의 성격 ①

- 자신의 앞에 있는 ‘연우’의 얼굴을 뵈는 쳐다봄.
- ‘연우’가 자신의 엽서를 읽은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함.

- 당찬 성격임.
- 작은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털털한 성격임.

- 10 ㉠에는 ‘채영’의 질문에 뭐라 답을 해야 하지만 답을 하지 못하는 ‘연우’의 행동과 심리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인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오답풀이 ① 감언이설(甘言利說)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교언영색(巧言令色)은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다.

③ 언중유골(言中有骨)은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이구동성(異口同聲)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 11 이 글은 주인공의 육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 소설’이자 ‘연재소설’에 해당한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완성도 있는 독립적인 여러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연작 소설’이다.

- 12 ‘채영’은 자신이 썼던 엽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연우’가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 맞춰 보겠다는 것이다. ‘채영’은 ‘연우’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데도 장난을 칠 정도로 밝고 명랑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채영’의 성격 ②

- 자신의 엽서를 허락 없이 읽은 ‘연우’가 엽서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자 깔깔 웃음.
- 처음 본 ‘연우’가 마실 음료를 자기가 알아맞혀 보겠다고 함.

↓
엉뚱한 면이 있지만, 밝고 명랑한 성격임.

- 13 ㉠은 ‘채영’의 웃음에 ‘연우’의 가슴에서도 웃음이 피어났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연우’가 ‘채영’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에서 ‘채영’이 ‘연우’에게 탄산음료를 마실 것이냐고 묻고, 음료를 주문하여 받아와서 ‘연우’에게 준 다음, ‘연우’의 반응을 살핀다. 즉 자신이 주문한 탄산음료를 ‘연우’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되짚어보기 앞으로 전개될 인물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

- ‘다음 순간 나는 깜짝 놀란다. 채영이 깔깔 웃어서가 아니라 순간 실내가 환해지면서 내 가슴 한가운데에서도 연달아 전구가 켜지듯 웃음이 피어나 퍼져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아니, 좋아해. 딱 맞았어.’ → 탄산음료를 좋아하지 않는 ‘연우’가 좋아한다며 ‘채영’에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

↓
‘연우’가 ‘채영’에게 관심이 생겼으며, 이후 둘 사이가 가까워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01 ③ 02 ④ 03 길 떠난 아들 04 ③ 05 ⑤ 06 ③
07 ④ 08 ④ 09 ① 10 ④ 11 ②

- 01 (가)에는 ‘구부정 소나무의 내 나라’에서 ‘나’라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나)에는 ‘명절날 나는 엄마 아배 따라’에서 ‘나’라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얼마나 애뜻한지 아느냐’와 같은 의문문, ‘길 떠난 아들을 잊지 마라’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고무’, ‘삼춘’ 등의 시어를 반복하고, 친척들의 특징과 친척들의 자녀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명절날 나는 엄마 아배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에서는 대구를 사용하였다.
④ (가)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이 한국어로 쓴 작품이므로 ‘한민족 문학’에, (나)는 평안북도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므로 ‘지역 문학’에 포함된다. ‘한민족 문학’과 ‘지역 문학’은 모두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
⑤ (가)는 ‘구부정 소나무’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그리움과 슬픔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토방돌, 반디젓, 송구떡, 콩가루차떡’ 등의 토속적 소재를 통해 향토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백석, 「여우난골죽」

이 작품은 명절을 맞아 큰집으로 나서는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드러낸 시이다. 시인은 자신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의 모습을 토속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토속적, 회고적, 산문적, 묘사적
제재	명절날 큰집에 모인 친척들과 집안 풍경
주제	명절날 고향의 풍요로운 정취와 가족 간의 유대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됨. 어린이의 시선을 취하여 회상의 형식으로 표현함. 반복, 열거, 대구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 소재를 통해 향토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함.

- 02 (가)에서 화자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돈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인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망양지탄(亡羊之歎)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감개무량(感慨無量)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 03 ‘길 떠난 아들’은 화자, 즉 망명하여 러시아로 온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시구이다.
- 04 ‘저도 몰래 주먹을 쥔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차오르는 눈물을 참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다. 따라서 자신을 버린 고국에 대한 원망과 울분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외따로’는 ‘구부정 소나무’가 숲의 다른 나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서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② 화자는 ‘로씨야 땅’에서 ‘구부정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현재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⑤ ‘소리 없이’와 ‘외친다’가 서로 모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떠온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아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05 이 시는 어린아이를 화자로 설정하여 어릴 적 명절날 풍경을 그림으로써 회고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현재형 어미 ‘-는다’를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 06 시구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에서 팔팔하고 기운이 센 ‘삼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07 근대 전환기 이래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민족 문학’이다.
- 08 ‘현대적 문학’은 인터넷 매체나 전자책의 형식으로 유통되는데, 대개 전문 작가가 창작하지만 누구나 창작할 수 있다. 독자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독자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음악,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글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 문학’에 비해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 09 ‘연우’는 (다)에서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 머리에 쓰며 버스 안을 훑음 살펴보고, 디제이도 아닌데 차 안에서 헤드폰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만 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연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10 ㉔은 신난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 ‘채영’을 만나기 전 긴장을 한 ‘연우’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 11 작가는 댓글을 통해 독자와 쉽고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집필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작품 흐르는 북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496~505쪽

- 01 ② 02 ③ 03 북을 치셨다면서요. 04 ③ 05 ④
06 ② 07 정색을 하고 쳐드는 성규의 눈빛 08 ④ 0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② 19 잡음

- 01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민 노인'이 '민대찬'의 반대 때문에 북을 치는 것을 자제하고 있으며, 고민 끝에 '민성규'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02 (가)에서 '송 여사'는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라며 '민 노인'을 질책할 뿐,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 03 '민 노인'과 '송 여사'는 '민 노인'이 '민성규'의 학교에서 북을 친 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송 여사'가 한숨을 쉬며 "북을 치셨다면서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 04 '민 노인'은 공연이 끝난 후 '민성규'의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술과, 공연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뒤에 느낀 만족감과 느긋함 덕에 편안한 마음으로 폭 잘 수 있었다.
- 05 '민대찬'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것은 '민성규'가 부재중이라 당장 화를 내지 않은 것이지, '송 여사'에게 민망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다.
- 06 이 글에서 '민대찬'은 '민 노인'을 공연에 참여시킨 아들을 꾸짖고 있고, '민성규'는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당당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다.
- 07 '민대찬'의 꾸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음을 흘렸던 '민성규'는, 자신을 놀리려는 '민대찬'의 말을 듣자 표정이 바뀌고 있다. 정색을 하고 있는 '민성규'의 눈빛에서 '민성규'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08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북을 잘 치는 '민 노인'이다. 또한 '그걸 표현할 기회'를 준 사람(㉡)은 '민 노인'에게 북을 칠 기회를 마련해 준 '민성규'이다.

- 09 이 글에서 '북'은 '민 노인'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대상이자 '민 노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민 노인'과 '민대찬'이 갈등하게 하고 '민 노인'과 '민성규'를 화합하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북'이 경시당하는 것을 통해 전통 문화의 쇠퇴를 짐작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민족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되짚어보기 '북'의 역할

-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 노인'과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대찬'이 갈등하는 계기이자, 세대 간 단절의 원인이 됨.
- '민 노인'과 '민성규'의 사이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함.

- 10 (다)에서 '민대찬'은 '민성규'에게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라며 화를 내고 있고, '민성규'는 '민 노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민대찬'에게 맞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11 이 글에서는 할아버지 세대인 '민 노인'과 아버지 세대인 '민대찬'의 갈등, 할아버지 세대인 '민 노인'과 손자 세대인 '민성규'의 화합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의 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표현되고 있다.
- 12 '민대찬'은 '민성규'가 뜻을 굽히기는커녕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이다. 급기야 화가 폭발하여 '이놈'이라는 비속한 표현을 통해 '민성규'를 낮잡아 이름으로써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3 '민성규'가 '민 노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보인 웃음은 자신을 걱정하며 도와주기 위해 응접실로 나온 '민 노인'에게 자신은 괜찮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배려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14 '민대찬'과 '송 여사'는 '민 노인'과 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라)에서 '민대찬'과 '민성규'의 대화를 통해 '민대찬'이 '민 노인'의 삶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에서 '송 여사'가 '민성규'의 데모를 '민 노인'의 탓으로 여기며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민성규'는 '민 노인'의 예술혼을 존중하며, 그에게 공연할 기회를 마련해 줄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오답풀이' ①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자기 때문에 성규가 공지에 몰려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서였는데'를 통해 '민 노인'이 '응접실'로 나온 까닭을 알 수 있다.

④, ⑤ '민 노인'과 '민수경'은 지갑을 두고 와서 집으로 되돌아온 '송 여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송 여사' 역시 아직 '민성규'가 연행된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난들 아니. 가 봐야지."라고 쏘아붙이고 있다.

- 15 ‘송 여사’는 ‘민성규’가 데모에 참여해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며 놀라고 있다. 그리고 ‘민성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의미하는 말인 ‘전전긍긍(戰戰兢兢)’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순망치한(肅亡齒寒)은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②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깨나 잊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를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의미하는 말이다.

- 16 ‘민수경’은 ‘민 노인’의 복소리를 ‘잡음’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민 노인’의 기본을 살피고 ‘복’에 관한 질문을 하며, ‘민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 노인’과 ‘민수경’의 대화를 통해 기성세대가 지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되짚어보기 제목 ‘호르는 복’의 의미

- ‘민 노인’의 복소리가 ‘민성규’에게로 이어지는(‘호르는’) 모습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음을 암시함.
-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함.

- 17 ‘민 노인’은 과거에 예술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랑 생활을 하였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데모에 참여한 ‘민성규’ 역시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 노인’의 역마살과 ‘민성규’의 데모는 일반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으며, 각자의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되짚어보기 ‘민 노인’의 역마살과 ‘민성규’의 데모

‘민 노인’의 역마살	‘민성규’의 데모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추구하며 이리저리 방랑하던 ‘민 노인’의 삶을 의미함.	진보와 화합을 중시하며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민성규’의 삶을 보여 줌.

- 18 ‘민수경’은 ‘민 노인’이 복을 연주하면 궁상맞다고 타박하던 평소와 달리, ‘민 노인’에게 복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성규’가 할아버지의 복소리에 푹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에서, ‘민 노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19 ‘민수경’의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라는 말을 통해 ‘민수경’이 ‘민 노인’의 복소리를 시끄러운 소리인 ‘잡음’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학의 생활화와 공동체의 문화 발전

작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작품 분석 및 확인 문제

본문 512~513쪽

01 ① 02 가 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03 ③ 04 ②

- 01 이 시는 ‘~마라’, ‘~리라’, ‘~법’을 활용하여 시행을 종결함으로써 단정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확신에 찬 태도로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시상은 명사가 아닌, ‘~리라’로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시의 화자는 현재의 슬픔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기다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달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시에서는 현재를 ‘절망의 나날’이라고 표현하고, 미래를 ‘기쁨의 날’이라고 표현하며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④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라는 당부를 전하고 있다.

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표현에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련과 고난을 겪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작품의 어조 및 효과

어조 단정적(‘~마라’, ‘~리라’, ‘~법’)



화자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확신에 찬 태도로 전달함.

- 02 ‘가 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에서 ‘가 버린 것’은 현재의 슬픔과 고통이자, 시간이 지난 미래에서는 과거의 일이다. 또한 ‘마음에 소중하리라’는 소중한 것,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구는 현재의 슬픔과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것이 되고, 이는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됨을 의미한다.

되짚어보기 2연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

현재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재는 언제나 슬픔.
미래	과거의 것들이 마음속에 소중한 것으로 남음.



현재 겪고 있는 슬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며, 미래에는 과거의 슬픔도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임.

- 0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망의 나날’, ‘현재’, ‘모든 것’은 현재의 시련, 고통, 슬픔 등과 관련이 있는 시구이다. 반면 ‘기쁨의 날’은 미래에 맞이하게 될 기쁨, 행복과 관련이 있는 시구이다.

04 [A]에서는 현재의 고통을 잘 견뎌 내면 미래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의미하는 말인 ‘고진감래(苦盡甘來)’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감탄고토(甘香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망양지탄(亡羊之歎)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자포자기(自暴自棄)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단원 평가 문제

본문 520~521쪽

01 ③ 02 역사의 의미 03 ③ 04 ① 05 ⑤ 06 ④
07 단정적

0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민 노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민 노인’이 공연을 마치고 뿌듯함과 느긋함을 느끼는 부분, ‘민 노인’이 며느리의 눈이 비뚤어져 있었다고 느끼며 속상해하는 부분 등에서 독자는 ‘민 노인’에게 공감하게 된다.

02 ‘민성규’는 ‘민 노인’과 ‘민대찬’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라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역사의 의미’란 ‘민성규’가 앞에서 언급한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03 ‘민대찬’은 ‘민성규’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특하구나.”라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민성규’를 비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에서 ‘잇었노라’는 사실 화자가 ‘당신’을 잊지 못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낙엽은 풀-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에는 은유법이 쓰였다.

②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에는 직유법이 쓰였다.

④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등의 구절에서 ‘별 하나에 ~와/과’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쓰였다.

⑤ ‘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는 역설법이 쓰였다.

04 현재 아들 내외는 ‘민성규’가 잡혀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밤늦은 시각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남아 있는 ‘민 노인’은 늦은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 내외와 손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 내외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를 통해 그들이 ‘민 노인’에게 무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이 시는 ‘절망의 나날’과 ‘기쁨의 날’, ‘현재’와 ‘미래’를 서로 대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② 이 시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명사로 종결하여 단정적인 어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설의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이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등의 감각적인 이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독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의인화된 청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06 이 시의 화자는 슬픈 과거를 견뎌 내면 행복한 미래가 찾아오고, 미래의 때에는 과거의 슬픔도 소중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를 인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한다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마라’는 동사 뒤에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을 나타내는 말인 ‘말다’에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라’를 활용한 것이다. 또한 ‘~리라’를 사용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었고, ‘~법’을 사용하여 명사로 종결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정적인 어조를 띠게 하고,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